

忠清北道教育委員會會議錄

(第2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1.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0
3.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소위원회	82
4.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소위원회	89
5.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감사·조사소위원회	96
6. 부 록	101
가) 의사일정(안)	103
나)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4
다)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109
라)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추가분)	117
마)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21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6일(목요일) 14시

의 사 일 정(제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소위원회 구성

부 의 된 안 건

1. 경과 보고
2. 회기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5. 예산 소위원회 구성

(14시 개의)

○ 의사과장 이영규 : 지금부터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
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 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 주악과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 ·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교육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02분) 2. 회기 결정 ○ 의장 김영세 : 먼저 의사일정안에 따라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회기를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며, 1일차인 오늘은 회기결정 및 안전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2일차인 9월 27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며, 제3일차인 9월 28일은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11월 정기 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감사·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의 회기는 '91년 9월 26일
(14시 01분)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9월 1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4호로 집회공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4분)

3.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이제 제1호 의안인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시에는 조례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직제 및 기구개편에 따른 보완적 성격의 개정안이기에 소위원회 구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지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말씀하시죠.

김응복위원 말씀하시죠.

○ 김응복 위원 : 의장님 말씀대로 이위원회 설치조례증 개정안은 보완적 성격이 있고, 또 조례 자체가 기구개편에 따른

보완적 조치이기 때문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김응복위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 소위원회는 구성치 않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1호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발언대에 나옴)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8월 16일자로 대통령령 제13451호로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의 직명이 개편되고 국·과

의 신,증설로 인하여 위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적정인원으로 재 구성 함으로써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개편된 직명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위원구성이 학무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인내지 11인의 위원은 종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 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의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을 말씀드리기전에, 자치법규집은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아직 보시지 못한 위원님도 계시지 않으실까 하여 개정코자 하는 명칭과 변경된 조례의 목적, 즉 성격이죠, 참고로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목적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등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기구입니다.

두번째,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설치조례의 목적은 학교보건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번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의 교육소청에관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에 출석 하였을때 일비, 여비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네번째,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충청북도과학전람회 개최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다섯번째,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충청북도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

시를 위한 협의, 조정·협력증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

협의사항으로는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사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협조체제, 진흥에 관한 심의·조정 협의입니다.

여섯번째, 단재교육상조례는 충청북도 교육발전에 공헌한 자와,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시상하는 단재교육상의 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일곱번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에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관리 책임자의 지정, 중요재산의 범위규정, 관리요령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재산관리 조례입니다.

그러면 다음 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내용은 제2조 제2항중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제·기구개편으로 부교육감, 3개국, 3담당관, 10과장, 계 17명은 심

의회 인원으로는 너무 많아 적정인원으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칙에 부기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직제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중 첫째, 충청북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 설치조례중에서 제2조중 “각 교육장”을 “하급교육청 교육장”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2항중 “학무국장이”를 “중등교육국장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두장을 넘기시고 신·구대조표를 잠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줄 제2조(설치)란에 “각 교육장 소속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 이것을 “하급교육청 교육장 소속하에”,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하 여섯개도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두번째 항으로 가서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제3조중 “갑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는 개정 국내여비 규정에 “갑

류,” “을류” 구분이 삭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갑류”, “을류”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세째,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 제16조 중 “을류”를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네째로 직제개편에 의하여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2조 제2항중 “학무국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 제3항중 “학무국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과장, 관리국관리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 부녀청소년과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신설 및 직명개정에 의한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초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 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중 “사회체육과”를 “사회교육체육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단재교육상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 “학무국장”을 “부교육감”으로 하고 제8조 제5항 제1호중 “학무국장, 관리국장”을 “본청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제10조 제1항중 “10월중에 교육감이”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유는 통상 행사가 겹치는 10월중에 시상이 잘 안되고 늦추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5항 제2호중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관리과장(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 (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계장)이 된다”로 변경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이 되고”를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로 개정하여 개편된 현실의 직제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표결은 제2차 본회의로 넘기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은 표결 직전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4.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2호 의안인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할 순서이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의결을 요할 사항은 바로 어제 9월 25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이를 받아들이면 추경예산 규모가 달라집니다.

내용은 독학생 학위취득 소요경비 또 결식아동 식대보조사업 등 당면한 국가시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에 합하여서 이것을 심의하지 않으면 바로 이 국고보조금이 교부예산에서 우리가 손실을 받게되고 이것을 반납하여야 할 이런 성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1억2천2백만7천원을 기배부해드린 예산안에 합산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위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합산하여 심의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산하여 심의하기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모두 동의하여 주셨죠?

이의가 있으신분 없이 모두 합산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총 1억2천2백만7천원 국고보조금을 제2호의안인 추경예산안에 합산하여 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2호의안인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서 여러 위원 모두가 본 내용을 알아야 될 사항이기에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이 있은후 그 내용을 참고하신후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종래의 교육·학예에관한 합의제 집행기관이던 교육위원회가 심의·의

결기관인 교육위원회로 새롭게 구성되어 개원한지 20여일이 경과했습니다.

새로운 교육위원회가 개원된지 처음으로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1991년도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의미가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은 별첨된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와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엄갑도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간 또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추가로 말씀해 주신 국고보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추가로 작

성이 되서 다시 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말씀하세요.

○ 관리국장 김근학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추가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별첨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추가분)과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 추가분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해 해 주신다면 엄갑도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본청각과 및 사업소별, 교육청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행정과장님, 본청각과 및 교육청별 편성내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옴)

○ 행정과장 엄갑도 : 행정과장 엄갑도

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개요와 본청 각과별 및 교육청별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8절지로 되어있는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개요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책부록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와 같으므로 기재 생략)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라는 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내용은 별책부록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와 같으므로 기재 생략)

이상으로 본청 각과 및 사업소, 교육청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세 : 장시간에 걸쳐 제안설명하여 주신 관리국장님,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전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다만은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
회하겠습니다.

10분후에, 지금시간 3시15분입니다.

3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15시 25분)

○ 의장 김영세 : 의석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안설명된 이 본 안전에 대한 질
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는 위원명을 소개하시고서 질의 하
시면 각 위원별로 답변을 바로 듣기로, 이
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이상일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세요.

○ 이상일 위원 : 목이 쉬어 대단히 죄
송합니다.

그 예산에 보면 교육행정자문위원회설
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자문위
원회를 교육청별로 다 설치할 하는 건지,
또 설치한다면 인원은 몇명이며, 어떤 기
준으로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
고,

두번째는 사립학교 지원에 연금부담금
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포함이 되어 있는
지 그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 의장 김영세 : 이상일위원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설치 관계는 교육
청별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
해서 교육청별로 3명내지 7명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촉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학식과 덕망이 있어 교육발

전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을 교육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금에 대해서 연금 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포함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상일위원 됐습니까?

○ 이상일 위원 : 예, 됐습니다.

(김사수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 의장 김영세 : 김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사수 위원 : 세입·세출예산을 통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수입인데 청주농고 실습지를 매각을 했는데 일반상식으로는 농고에서 실습지를 사들여야 원칙인데 이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에 수업료 결손관계인데 특별교부금에 또 15억원을 보전을 받았습니다.

아까 행정과장 설명에 의할것 같으면 예산에 책정이 안된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보전을 받았는데도 아마

5억9천5백만원정도가 예산상 결손으로 되어있는데 그 이유를, 보전이 되었는데도 결손이 생기게 된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 각과 요구사업으로서 이번 추경에 많이 올렸는데 그 금액이 한 21억8천만원이면 대단히 많은, 우리교육위원회 예산으로는 많다고 하는 편인데 이 기구 확충관계, 자치제로인한 기구확충관계로 인해서 비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대개 그 설명을 들어 보니까 물품구입이라든지 상당히 당초 예산에다 세웠더라면 충실히 집행이 되었을 테고, 또 당초 예산에 예비비 한 48억원정도 서있었는데 예비비를 이번에 한 31억원을 삭감해 가면서 각과의 사업을 하는 예산 추경을 하였습니다.

이런데서 절차상으로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3개월밖에 없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그 기간내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각과 사업비를 지금에서 21억8천만원을 추경에다 계상한 이유를 간

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주농고 시설사업입니다.

청주농고 박물관 건립 기타종합실험실로 한 1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 농고 박물관의 성질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학교에 급식시설, 이것이 한 3억9천만원되는데 특수학교 급식시설을 어떤것을 하기에 3억9천만원정도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에 반송국민학교를 신설하는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지확충관계, 현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기계공고의 청주권역 공업계 재배치 계획으로 15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어느정도 후보지가 결정되어 있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예산이 앞으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그간에 15억원을 들여서 과연 살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현재 진척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일시차입 사항이 금년

도에 몇번이나 했으며 앞으로 일시차입을 더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괴산교육청에 청천중학교 강당 신축비로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국고보조는 1억5천만원밖에는 아마 안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도비에서 부담하는지, 부담하면 부담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감사수위원께서 상당히 여러항을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답변준비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며)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답변하세요.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감사수교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고 실습지 매각으로 15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자의로 매각을 한 것이 아니고 청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청주농고 실습지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해 편입된 지역의 보상금을 받은것으로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수업료결손 보전관계로 15억원이 국고보조가 됐습니다만은 수업료 결손액이 5억정도 생긴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그 결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원인중 학비감면이 있고, 1학기때는 수업료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것하고 겹해서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과별로 담당부서에서 예산추경 신청한 것이 한 20억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할 수는 없었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때 여러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만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새로운 기구가 창설이 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을 한다든지 예산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탄력성 있게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었고, 그래서 절차를 밟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농고 박물관과 종합실험실습실 건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청주농고 박물관은 그야말로 농업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우리도에서 전국학생 영농전진대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총리이신 정원식 문교부장관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그자리에서 현총리이신 문교부장관님께서 “이런 기회에 농업 박물관을 하나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마침 청주 농고에 실습지 매각대금이 15억원이 들어 오고 하기때문에 박물관 건립 계획을 하게 됐고, 또 종합실험실습실 관계는 각도별로 종합실습실을 하나 건립을 해서 우리도에 있는, 각 도에 있는 농고생들이

중요한 실험실습은 그 실험실습실에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수학교 급식시설은 여러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국민학교 전 학교에 대해서 급식시설을 완료해서 급식하는 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서 특수아동들에 대한 급식 시설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이 보조되서 급식시설을 하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주 반송국민학교 부지확보 관계는 청주시의 2부제 수업을 해소하고 또 가경지역의 토지공영개발단에서 대단위 토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 학교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주시로 하여금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단에서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교를 하나 건립하면 좋겠다는 애기도 있었고, 마침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한 190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아마 내년쯤만 돼도 그 곳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 교실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권역 공업계 재배치 계획으로 저희들이 15억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말씀은 아직 교육위원님께서도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청주시내 변두리 지역에 공고부지로 물색을 하고 그 일차 추진을 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진척이 되면 상세한 보고를 그때 교육위원님께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을 몇번이나 했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시차입은 금년에는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연말이 이제 한 3개월뿐이 안남았습니
다만은 혹시 저희들이 자금수요가 달리지
않을까 해서 미리 예상해서 일시차입을
1억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중학교에 강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년전에 강당 기초공사만 해놓고
방치상태에 있었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만은 선거공약사업으
로 되어 있던 것인데 저희들이 김종호의
원님한테 몇번을 가서 조르고 해서 그분이
내무부에서 1억5천만원을 특별교부를 받
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모를 줄이는 것
으로 당초 계획을 해봤는데 기초한 것을
보고 그것을 줄였을 경우에 기초는 한 700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그것을 예산에 맞춰
줄이면, 김종호의원 말씀은 “자기가 준
1억5천만원만 가지고 좀 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만일 줄였을 경우에는 지역 주
민에 대한 공신력 관계도 있고 또 국회의
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푼도 보태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없는
예산이나마 몇천만원 보태서 건립, 완공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사수위원 위원석에서)

○ 김사수 위원 : 되었습니다.

○ 관리국장 김근학 : 제 답변에 빠진
사항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 의장 김영세 : 답변 다 되었습니까?

○ 김사수 위원 : 예, 알았습니다.

(김응복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 김응복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질문에 조금 차질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편성하는데 있어서 '90년도 4월을
기준해서 '91년도 학급수를 조정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차이가 언뜻 생각해서
100여 학급이 됩니다.

이 100여 학급에 대한 학급 조정으로 말미암은 교원인건비가 약25억원이 세출에서 남아도는 격이죠, 뜨는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학급조정을 현재와 같이 계속 그대 같 것인가, 아마 학급 조정에 원인이 되는 아동의 증감에 관해서는 예산 수립 전년도에 내가 알기에는 10월달 정도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조정해서 학급 편성차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에 25억원이 대략 생각해서 학급 조정으로 무릇 말미암은 교직원 인건비의 차질이 나는데, 추경 예산 수립 지침에 보면 과학실험실습 확충에 제일 중점적으로 제1항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잉여 25억원을 좀 유목적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세출에 고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충주 농고에 버스 구입으로 해서 생산물 매각대금 환원하고 약 4천백만원이 남습니다.

버스 한대 값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혜원 국민학교에 또 통학버스 한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는 2천기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혜원 국민학교에 계상된 버스와 충주 농고의 버스 구입에 차이가 나는 이유, 그 다음에 충주 농고가 된 것이 뭐 일천한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학교와 실습지 거리가 이미 여러가지 먼거리라는 것은 이미 않으셨을 텐데 그걸 이제까지 해결하지 않고 이번에 와서 4천백만원씩이나 계상해 가면서 버스 구입을 과연 해야 할런지, 하신다면은 어떻게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 교원들의 보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그 핵심이 아마 소신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자들의 소신과 긍지를 심어주는데는 전문 장학진에서 참으로 진지하게 교육을 해 주시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럴때 보수교육사업이 변경된 이유와 앞으로 그러한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부활할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김응복위원 질문에 아

마 답변이 관리국 소관이 있고, 학무국 소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나누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제가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김응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학급 편성에 차이가 오는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농촌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막아야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부득이 안되기 때문에 농촌에 학급이 줄고, 그로 인해서 교원도 자연히 감축이 되고 해서 인건비가 25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행정과장이 25억원이 아니고 10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관리국장에게 말하자 김응복위원 위원석에서)

○ 김응복 위원 : 자료를 보고 대략 산출해보니까 100여 학급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말씀해 주세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저희 행정과장이 계산해 본봐로는 대략 추산해서 10억원 정도가 아마 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시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청주시에는 교원들이 많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로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실험실습비로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번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는 많이 충당은 못하고 점차적으로 늘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여러가지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과학 실험실습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과학실험실습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 농고 버스 구입비 4천백만원

은 버스가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해원학교에 2천3백만원이 소형버스이고
해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충주 농고 버스 구입은 옛날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서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예산 여유가 조금있었고 또 충주
농고에 실습지를 조금 매각을 한 것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한 것을 환원한다는 차
원에서 이번에 충주 농고에 버스 한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이 되
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예.

(초등교육국장 집행기관석에 일어서서)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신규임용 교사
보수교육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교원임용 신규교사
보수교육 사업변경해서 감이 6백2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임용전이
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다, 자연인이다,
그래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그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6백2십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 감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 김응복 위원 : 보수교육은 그대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신규교사 임
용전 보수교육은 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전에 2박3일 정도 합숙훈련
을 합니다.

단재교육원에서 합숙을 하는데 주로 그
프로그램은 교직원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전문직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
기회를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교직생활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
고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
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김응복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습니까?

○ 김응복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다른 위원……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이재희위원 말씀하세요.

○ 이재희 위원 :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문고등학교에서만 생활관 증축으로 충주고등학교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유독 충주고등학교만 증축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타 인문고등학교에도 이런 생활관 증축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재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주고등학교 생활관 증축, 인문고등학교에 생활관 증축을 하는 이유하고 타교에도 확대할 수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고등학교에 생활관은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기숙사입니다.

현재 기숙사가 운영이 되는데, 이는 아마 충주 지역사회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충주지역에 유지들께서 교육부에 몇년 전에 협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3억원 정도 협조를 받아서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자 원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사업이 급하기 때문에 한 2억원 정도만 지원을 하고 1억원은 다른 용도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충주고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북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충북지역의 명문으로 부상하다 보니까 타 학생들이 많이 충주지역에 유학을 올 정도이고,

그래서 먼저 2억원만 가지고 기숙사를 지었는데 충주고등학교나 충주 지역사회에서 그전에 우리가 탄데서 좀 지원 받은 돈이 있는데 왜 그것까지 다 투자를 안해 주느냐 하는 요구가 있고 또 저희들이 보

기에도 우수한 영재들이 몰려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영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표현이 생활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말씀 드릴 때는 기숙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에는 생활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타지역으로 확대할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충청북도 교육재정이 좋아지고 나면 우선 저희들이 실업계 학교에는 특히 공업계 학교에는 기숙사를 건립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재정이 좋아지고 나면, 제천 지역이라든지 기타지역에도 기숙사 건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극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 의장 기명세 : 이재희위원 답변되었습니다니까?

○ 이재희 위원 : 예.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의장 김영세 : 박병해위원 질의하십시오.

○ 박병해 위원 : 중복을 피하고서 우선 사회교육체육과장님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활동 관리라고 해서 6백7십만원이 되어있는데 이안에는 청소년 단체에 대한 여러가지 적절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요즘 세태로 봐서 일반 학생들의 생활지도 관계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도 되는건지 또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10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훈련비라고 해서 저기 나와 있습니다.

천9백만원 나와 있는데 전국체전 훈련비 외에 모든 체육선수들의 훈련비는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이 두가지를 체육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

고, 아까도 차입금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관계 이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차입금이 있다면 그 차입금의 총액은 얼마나 되는 건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상입니까?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사회체육과장 계세요?

(사회교육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옴)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입니다.

첫번째, 청소년 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기정예산에 천만원 있는데 거기에 이번 요구액이 6백7십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단체가 지금 다섯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청소년적십자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요구내역 6백만원은 청소년 종합보고서 그렇니까 활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나 하는 보고서를 600부를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을 600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가 들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본국에서,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220명의 충청북도 지도자 및 학

생을 참가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한 3백만원 예산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 지도자의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또 가시는데 여기에 주로 경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문제인데요 이것을 당초는 6천4백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번 예산에는 천6백만원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경기 선수라고 있어요, 육상에서 부터 수영등 열가지 종목입니다.

그 종목 학생 선수들이 한 180여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이 개인 경기는 분산이 되면 그 지도자가 없습니다.

또 장소가 좋지 않아요.

이래서 청주지역에 모여서 방학때를 이용해서 장기간 합숙을 시킵니다.

이것에 대한 경비가 매년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3식 먹고 1박을 하는데 4천5백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현실화를 시키자 해서 여기에 추가를 해서 7천원씩, 1인당 1일에 7천원씩 해서 20일간 187명 이렇게 계산이 되겠고 그것이 한 8백2십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금이 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을 하게 되면 또 훈련 도중에 격려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원별로 5명이하, 10명이하, 20명이하로 정한뒤 월 얼마만큼 5만원씩, 10만원씩, 15만원씩 이렇게 해서 현지를 가서 격려하는데 여기에 한 4백만원이 듭니다.

또 나머지 4백만원만원은, 총8백만원이 되겠지요.

이 4백만원은 현지에 가서 대회출전 후에 가서 이기는 님한테 세번을 격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8백만원 이래서 천6백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학교 운동부외에 그러니까 전국출전 선수외에 지원되는 저희들이 국고에서 우수선수 육성, 1교1기 지정 이렇게 해서

국고에서 많은 협조를 받습니다.

거기에 학교별로 배시가 됩니다.

○ 박병해 위원 : 그러니까 현재 훈련하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아이들 외에 모든 선수들 육성에 관한 경비는 국고나 그의 경비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영식 : 예, 그렇습니다.

많이는 없습니다.

○ 박병해 위원 : 그리고 아까 이 생활지도비 얘기는 여기 이 단체에 쓰는 경비가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교외생활에 관한 문제점이 참 많은데 그것에 대한 생활지도비는 보질 못하겠는데 따로 있는 것인지...

(관리국장 집행기관석에서 일어서며)

○ 관리국장 김근학 :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지도 경비는 기정 예산에 천3백6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백만원은 혹시 연말연시를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백만원을 더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차입금 관계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박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차입금 총액은 얼마며 이자는 얼마나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시차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로 계상해 놓은 것은 혹시 연말에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연말자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지 현재 차입금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도에는 우리가 일시차입금 이자로 9천만원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5천만원이 일시차입금 이자로 지출된 바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해 볼때 현재같은 자금사정이라고 한다면 일시차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까만은 또 혹시 몰라서 연말 수요에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박병해위원 답변되었습니까?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또 질의하실분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세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여섯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첫째 기초과학기술의 진흥 하게 되면 그 기초과학기술의 진흥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몇%를 쓰고 있는가?

그 나머지 다섯가지 기본 방향별로 과연 얼마만큼 기본방향을 충실히 지켜가고 있는가를 퍼센트별로 계산해 놓으신 것이 계신가를 첫째로 묻고 싶고,

두번째는 지금보니까 각 교육청별로 물론 그 규모라던가 사업의 완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연하겠습시다만은 그 규모나 완급외에 다른 어떤 예산 배정의 기준이 있는가, 그 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답변자료 준비로 잠시침묵)

아직 계산이 덜 되었으면 다음……

(관리국장 집행기관석에서)

○ 관리국장 김근학 : 세출 예산 기본방향에 대한 여섯가지 항목별 퍼센트는 지금 계산된 것이 현재 이 장소에 없기 때문에 추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별로 규모나 사업의 완급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배분할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도의 인구수, 학생수, 학교·급별수를 지수화한 예산기준에 의해서 총괄예산으로 저희들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각 교육청별로 나눠줄때는 학교수라든지 학생수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또 특별한

사업이 있어 교육부에서 목적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천중학교 마냥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전입이 된다든지 하면 예산의 규모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 퍼센트는 다음 기회에 답변하셔도 양해하시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 네, 좋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니 질의 종결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여 주신 여러위원님 또 이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07분)

5. 예산소위원회 구성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을 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필요성을 묻겠

습니다.

이 필요성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거수로 발언시청)

예. 김광수위원 말씀해 주세요.

○ 부의장 김광수 : 개괄적인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하셨습니까만은 이것을 보다 더 심도있고, 또 보다 자세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김광수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이 있었습니다.

예산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동의와 찬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예산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소위원회 구성을 어떤위원으로 선임할지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 먼저 의사과장님께서 물겠습니다.

이 선임하는 방법이 뭔가 되어 있습니까?

○ 의사과장 이영규 : 본 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전제조항인데, 위원님께서 의장에게 추천을 일임하셔서 그 추천된 위원들에 대하여 신임을 물어서 가결을 거쳐야 됩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그러시다면 그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의장님이 이자리에서 추천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결의를 받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김광수위원의 의견에 찬성이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에게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

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사수위원, 김응복위원, 이근수위원, 이상일위원, 권혁풍위원 이상 다섯분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원 찬성하시죠?

이의없이 전원 찬성으로 이 다섯분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예산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임되신 위원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명씩 호선토록 되어 있으니 본 회의 산 회후에 선출하신 후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기중에 표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91년 9월 27일은 휴회를 하고, 제2차 본 회의는 의사일정대로 '91년 9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제2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정 의결하여야 합니다.

이 서명위원을 김사수위원, 박병해위원 두분을 지명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심으로 해서 두 위원께 위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본 회의 회의록 서명 위원으로 김사수위원, 박병해위원이 만장일치로 선 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이상으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 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2분 산회)

○ 출석위원수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 1.

○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별첨 2.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 별첨 3.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추가분) : 별첨 4.

※ 별책부록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자료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8일(토요일) 10시 30분

의 사 일 정(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감사·조사소위원회 구성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소위원회 심사보고
3. 감사·조사소위원회 구성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까.

○ 의사과장 이영규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9월 26일부터

예산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따라서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변경된 부분없이 소위원회 보고 사항이 있으시겠습니다. 9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감사·조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이 심의 종료된 후에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제1호 의안을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전원이 “이의없음”을 표명)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의 없으므로 제1호 의안인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제1호의안인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도 하였습니다만은 다시 이자리에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3분) 2.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제2호 의안인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보충질의와 답

변이 있는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소위원회간사 이상일 : 예산소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이상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별첨된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기재생략)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산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짧은 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소위원회의 심사결과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미 수정동의안을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바 그 유인물을 참

고하시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답변은 소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고 그외 당초예산안에 속한 질의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

○ 의장 김영세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룬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질의 종결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본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육위원 거수)

예, 됐습니다.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소위원회 수정동의안과 같이 세입·세출
각각 3천2백2십8억3천9백7십1만6천원으로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3. 감사·조사소위원회 구성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감사·조사소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조사소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교
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와 회의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의 기간중 감사·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 대
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감사는 감사전에 감사계획서를 작
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
며, 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등 제반 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을 하여야 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감사·조사소위원
회를 구성코자 하는바, 어떤 위원으로 선
임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부의장 김광수 : 소위원회를 구성하
는데 그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의 제한이 되어있지 않다면 저희들
교육위원 전원이 그 감사소위원회 위원으
로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말씀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김광수 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찬성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개의안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감사·조사
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감사·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명씩 소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주시고 정기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제반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

○ 의장 김영세 : 마지막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 질문·답변은 일관 질문후 일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경우에도 성실하면서도 간결 명료하게 답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는 위원 순서대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광수 : 김광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정인영 부교육감님을 위시한 충청북도교육담당관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교육자치제의 장을 열고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2백3십억원으로서 본 예산 3천2백2십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어떤 점으로 보아서 상당한 액수라고 보아지며 충청북도 교육을 운영하는데 절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예산은 우리 국민이 한푼 한푼 낸 세금으로서 이것이 쓰여짐에 아주 그 중요성을 절감하시고 통감하셔서 유효 적절하게 집행해 주시고 또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이와 같이 됨으로써 많은 국민들은 또는 많은 분들은 “교육에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 자신들도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다할 것인가, 충북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염려하며 또는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교육자는 타 공직과 달리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의식을 가지고서 교직에 임해야 되지 않는가. 봐줍니다.

그러기에 옛부터 이 교육자를 보고서 천직이라고 해왔습니다.

다른 공직은 자기 맡겨진 일만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교육자는 그 상대가 있어서 애들을 지도하고, 교육함으로써 그 능력과 또는 효과를 같이 봐야하고, 거기에 정신이 깃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절대 이 천직이라고 하는 교육을 맡아서 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봐줍니다.

다른 직업이나 공직은 자기의 생활습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직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줍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또는 교육에 봉사해가면서 그러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지만이 교육자가 된다고 봐줍니다.

그러기에 첫째, 교육자가 되는 시발부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교육대학을 나와서 또는 사범대학을 나와서 또는 다른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지금같으면 순위고사를 본다던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채용이 되어서 교사가 됩니다만은 교직에 발을 들러는 그 당시부터 이것을 생활수단으로 교직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봐줍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주 투철하고 철저한 사명의식에서만 교육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래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줍니다.

따라서 저는 먼저 도의회 소신발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에 임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권이 확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말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하고 누구의 간섭을 받아서 이래라 저래라해서 움직여서는 아니된다고 봐줍니다.

이렇게 교권이 확립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됨으로써 소신있는 교육을 해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만 받아서 되겠느냐? 제일 큰 문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이 되어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하고 당당하게 자기 말은바 직분을 다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힘주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교육계를 희망하는 분들이 역시 우수한 인재가 이 교육계를 찾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 생활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얼마전에 제가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만 교육계에 있다가 다른 직장을 찾아서 이직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받아서 그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고 우리나라가 부해질것 같으면 그래도 교육자는 다른 공직자보다는 우대를 받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세태가 우리나라에 빨리 찾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자 자신들이 보다 더 질 높은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체교육이나 연수 또는 지금 현재 봉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더 노력을 해주셔야하겠고 보다더 품위를 위해서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노력해 주셔야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항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들도 교육자라고 하는 얘기를 항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에하나 현재 우리 충북 교육계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만은 그런 분이 있음으로서 전체 교육자 상을 홀트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첫째 품위를, 둘째는 질적인 향상을 가져와서 보다 더 훌륭한 스승의 상을 정립

하고 그러한 스승의 상이 정립되어 있는
그 밑에서 만이 교육도 잘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말도 더러 합니다.

“우리 교육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
다만은 누구든지 한번 실수를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다시 그것을 거두어 들이기가 대
단히 어렵습니다.

자기평생 실수한 것은 죽을때까지 따라
다니는 것이 하나의 과오요 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는 만에하나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실수를 해서는 아
니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이야지. 만이 훌륭한 제자를
배출해 낼 수 있는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
같은 진리라고 봐집니다.

훌륭한 감독 밑에 훌륭한 선수가 나오
리라고 봐집니다.

모쪼록 이자리에 부교육감을 위시해서
충청북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자여러분

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인
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우리 충북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
음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요즈음의
입시문제도 문제입니다.

지금 유인물을 잠깐 받아 봤습니다만은
이 입시제도 문제는 언젠가는 개선이 되
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
니다만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당장 바꿀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점진적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이 유인
물을 볼것 같으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이
대학 시험을 볼적에 그 제도가 바뀌지리라
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입시제도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
이 되는 것이 이 과외공부라고 아마 볼
것입니다.

이 지나친 과외는 망국적인 현상과 국
민의 위화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 왔기 때문에 정부당국에서
는 또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이 과외를 자
제하고 또는 어느 범위내에서 하도록 이

렇게 유도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입시제도는 학생들에게 지옥을 방불시키는, 공부에 아주 전념을 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 제도 제기되고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그렇 다고 해서 이 과외가 아주 없어 질 수도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은 농사중에 제일 큰 농사가 아들농사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공부는 좀 시원찮습 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뉘 것인가?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 들도 다 자녀를 가지고 계시고 그놈이 아주 출중나게 공부를 잘하면 모릅니다만은 중 간, 또는 조금만 거들어 줄것 같으면 될 것 같다던가 또는 어느분야가 조금 모자른 다 던가 할 적에는 과외를 시키고 싶은 생각이 또는 누구에게 지도를 더 받아보고 싶은 생각은 인지상정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외를 극단적인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자율학

습이나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써 이것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 온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저희들이 지방에 살면서 또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아! 이 보충수업이 잘 되고 있구나 또는 학교내에서 자율학습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저희들은 펍 찬성을 해왔고 또 그것을 하는 과정에 뒷바라지도 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우리 충북교육계 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어떠한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국한시켜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옥천같은 경우에 인문고등학교 하 나 실업고등학교 들이 있습니다.

종전의 예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중에 아들농사가 제일 큰 농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빚한 분은 국민학교때 애들을 벌써 빼서 대전으로 옮깁니다.

또 중학교 보내면서 공부가 좀 괜찮다고 하는 애들은 대전으로 옮겨 갑니다.

또 고등학교에서도 대전으로 옮겨 잡니

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래도 이 지방에 머리가 좋다고 하는 애들은 전부 대전 내지 청주, 서울 타지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고장에 남아있는 애들은 중간이하들만 남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이 4-5년 전부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제창 했습니다.

이것은 옥천학교 당국과 저희들 지방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창해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제창해서 이 근자에 와서는 거개가 외지로 빠져 나가지 않고 내고장 학교를 보내고 있어서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되어 지는가 싶은 실정이 되었고 또는 옥천에 인문고등학교 하나도 어느정도 자리가 굳혀 가는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하는 율을 보더라도 그래도 몇년전 보다는 작년, 재작년 2-3년 사이로 현격하게 나아지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와가지고서 이대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철저한 보충수업이 잘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옥천에 중학교 같은 경우 이 청주나 충주 대도시에는 학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옥천에는 학원이 없어요

이래서 중학교에서 정규학과가 끝나고 나면 이 학생들은 세시반이면 끝납니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 나름대로 자습을 한다던가 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다던가 이러한 현상이 납니다만은 이런것은 그렇게 펴 잘되는 편이 못돼요.

또 아주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아침에 아홉시 정도에 학교 등교를 합니다.

오후에는 세시반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학생들의 교의지도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대로 무엇인가 학생들의 학력제고를 한다는 뜻에서도 충북교육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통학교라던가 명문학교는 뭘 보고 전통학교, 명문학교라고 합니까?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배출이 되어

서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가 된다던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을적에 그 학교의 전통과 또는 명문이라고 지칭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든지 그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배출이 되어야지만 하는것이 우리의 염원이라고 봐질 적에 전인교육과 입시제도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요즘입니다만은 좀 각별한 그런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에 인문고등학교,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하나씩 있습니다.

인문고등학교에도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볼 적에 타지에서 대전이라던가 여기에서 옥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외지 학생이 들어왔고 상고에는 한 100여명이 대전쪽에서 학생이 들어왔고 공고에는 근 300명의 학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중학교의 교육을 방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내고장 학교 보내는 뜻이 없어지고 또는 내고장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옥천을 떠나서 보은이나 영동내지 어느 번두리로 학교를 보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형의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점으로 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봐집니다.

요즈음 와서 청주에도 중학교의 보충수업이 옛날같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찾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실제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부형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오히려 교외지도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생활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재삼 살피주셔서 이러한 보충수업과 또 자율 학습도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학력제고가 잘 되고 해서 우리 이 지역에 훌륭한 인재가 배출 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발언시간 20분 소정시간을 십분활용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이 발언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박병해 위원 :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의 11페이지에 보면 국민 정신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내를 위시해서 전 도내 중·고등학생들의 탈선 행위를 볼때에 매우 우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럴때 입니다.

그럴때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믿고 그래도 저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겠거니 하는 그 기대는 전교직원의 차원 높은 정신 교육이 강조되었을때 우리들은 그걸 믿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 현재 그 11페이지 안에 있는 교육계획안에 교사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6월 29일자로 충북교육소식에 국·중·고 교사들에 대한 학력관 교육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이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은 판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건지 또 교육이 된다고 하면은 그 교육의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해오셨는지, 이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에는 주요업무계획서안에 제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나 여성 교육과 체육 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은 전혀 한마디도 여기 실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째 그렇게 됐는가?

다만 요전 수안보 세미나 서류안에 원월국민학교에 지역중심 종합생활관이라고 하는 것을 건립한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성교육의 예절 교육이 필연적으로 따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하간 펍 궁금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째번에 이 업무계획서 페이지 12쪽에 보면 학습관과 학생관이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학습관과 학력관의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거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의에는 충북교육소식에 1월 25일자, 5월 25일자, 7월15일자에 학습관과 학력관에 관한 설명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천명을 요구하는 그런 기사도 거기에 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볼때에는 초·중·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자료도 또 그안에 6월 25일자로 강조가 되어 있고 이로 볼 때 아주 중요시 되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여러가지 교육사정으로 봐서 이 학습관과 학력관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시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것이 얼마나 실천에 옮겨졌고 실시되고 있는 것인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에 있는 학교 17개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한번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개교육청 이렇게 해서 이것을 낱낱히 잘 한번 찾아 보니까 그중에 한 학교만이 학력관이라고 하는 문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학습관과 학력관에 관한 교사들에게 여러가지 교육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얼마큼 침투가 되어 있는 것인가, 꼭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획있을 때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학습관과 학력관에 관한 문제를 학교에서 얼마큼 애기도 듣고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물어보면 거개가 이걸 전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또 그내용을 설명해 주면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정말로 철저한 어떤 과의수업을 받아야지요” 하는 이런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볼때에 '94년도부터 대학입시를 대비하는 그 준비로 봐서 이래도 안심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영재교육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계획서 16쪽에 특정한 학교에서 외국어과나 또는 예·체능과나 과 학과나 이런것은 수월성 교육 계획에 따라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자랑할만한 것이며 더욱 충실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특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 고등학교에 지금 재학중인 영재들에 대한 교육계획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체육에, 예능에, 외국어에 과학에 이런 소질이 있고 우수한 아이들은 들어가는데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면서 머리가 좋아서 아주 우수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어떻게 영재교육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 욕심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영재교육을 위한 인문고등학교 신설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또 궁금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번에는 취미, 특기, 소질, 신장교육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비진학자, 중·고등학교에 이러한 비진학자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들과 또 그 학교마다 영재숙으로 안들어간 아이들,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어서 그건 그 학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특수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거기도 못들어가고 비진학자 학생 또 이런 아이들을 보충지도를 안한다고 하면은 더구나 그 학생들은 그냥 수업만 끝나면 들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취미나 특기나 소질, 이런데에 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또 앞으로 교육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할만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이런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 될텐데 이러한 대책도 있는지 현실로 봐서는 이 문제가 꼭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북학생회관을 금년에 완공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의 용도중에 여기에 보면 교육연구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분간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하간 학생회관 목적사업에는 위배가 되지 않는가, 거기있을 동안에는 여하간 학생 활동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연구원 신축계획은 있는 것인지를 궁금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박병해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응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김응복 입니다.

질문말씀을 드리기전에 양해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실 교육행정관계, 기타 교육장학관계 이런것은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서 거기에서 참 진지하고 실감있게 주야로 하여간 고생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말씀이 혹 연구하시는 장학진에 실무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 방향이 비뚤어도 이해해서 참작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5학년도 부터 교육과정도 교과서 개편까지 해서 국민학교에서부터 교육과정이 중·고등학교 모두 바뀌는 것으로 오늘아침 신문보도에 봤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정보사회, 고도산업사회에 적응 할 수 있고 거기에 능히 감당해 내고 국가사회 발전을 획기적으로 시킬 수 있는 인재양성, 말하자면 첨단교육 관계에 지금 시급성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국민들이나 교육자들이나 여기 교육행정에 종사하시는 모든 인사들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과연 21세기 첨단교육에 첨단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느냐, 그 준비중에서 첫째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양성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상 걱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의미에서는 교육이 시대와 국가적과 세계적인 추세에 밀려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걸 예견해서 앞서서 리드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상 산업사회가 신속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불가결하다, 반드시 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절감하여 뒷따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학교에서 부터 각 외국어, 영어, 특히 또 컴퓨터 교육과목이 '95학년도부터 들어온다 하고, 어떻게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여하튼 불원장래에 국민학교 정규 교과목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 컴퓨터, 영어 이런 것들이 특활형태로 되어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영어교육이라든가 특활문제라든가 컴퓨터 같은 것이 제가 알기로서는 첨단, 말하자면 일찌기 시작했고 선견지명이 있어서 실시했고 지도내용도 비교적 충실하다고 봅니다만은 현재 일선학교의 현황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경진 경시 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에 이에 학생들을 길러서 선수를 내자하면 학교에서 다행히 지도교사가 있으면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학원에다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학원의 선생님들이 학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전문이라기 보다는 매달려서 지도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드려서 혹 결례가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은 누가 요구하고 누가 한다고 해서 변명하고 체면을 피해 거시기하고 이러한 때가 지금 실정으로 봐서 시급성이 그러한 점을 용서 못할 정도로 지금 시급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첨단사업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는 또 세계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때 외국어 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교육, 기타 첨단전자 교육같은 것, 중·고등학교 전자교육 이런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양성이 숫적으로 많이 지금 계상도 되었고 또 시책도 강력히 세워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과연 '95학년도까지 실질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점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그냥 교육했다고 해서 될 것이다 하고서 교육을 해라 하기 보다

는 뭔가 자격제도, 요즘은 자격증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람 같으면 일선 나가서 지도할 수 있다. 뭔가 믿음직스러운 거시기를 해서 참말로 그 귀한 영어특활에 듣는 기구라던가 말하는 기구 같은 것이 다 설치 됐고 또 컴퓨터 같은 것이 초·중등 한 50여대씩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사 제도를 하는데 그 믿음직스러운 교사, 저사람 같으면 지도하겠다 할 정도의 뭔가 자격제도를 두어서 그런 사람만 강화 하는 뜻에서 우대하는 시책도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의 질문은 대개 지금 박명해위원님 질문과 같은 보수교육에 대해서인데 사실은 사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바타이 되지 않고 아무리 잔재주 부리고 해봤자 국가혼란, 사회혼란, 도덕적인 여러가지 그 원인이 되고 인간의 바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의 교육철학이 투철하고 뭔가 소신이 있어서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한 혼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실속있는 이런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교육에 대한 사업변경 이랬는데 그런 사업변경을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교육청에서 일선교사 정신교육이나 무슨교육 한다는 건 제 생각으로서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육철학 또 그러한 소신의 인사들이 보수교육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수교육을 반드시 부활시켜서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김응복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권혁풍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권혁풍 위원 : 권혁풍입니다.

제가 다섯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타도에도 물론 그런것이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도의 특성으로서 특성학교라고 예를들어 금천고등학교라든가 중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설치

해서 운영을 상당기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특성학교가 운영결과로 볼 때 어느만큼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가?

지금 뭐 어떤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만은 중간평가라고 할까 대개 그 실적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특성학교가 대개 남녀공학이 되겠는데 특히 금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남녀공학을 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것 같습니다.

몇몇 학부형을 만났을때 그런 얘기도 있고해서 생활지도상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두번째 큰 것은 먼저 발표하신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은 보충수업관계, 우리도에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완전히 철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각

교육감에게 일임을 해서 각 도별로 이것을 재량에 맡긴 것인지 서울과 충북과 제주가 지금 그를 철폐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도 여기에서 철폐를 한 까닭은 뭔가?

다른도 다른시·군에서 저 대전, 충남, 이런데서는 아직도 실시를 여전히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어떤 전략에 있겠습니까만은 그 뭔가 원인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묻고싶고요.

두번째는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철폐한 뒤에 어떤 후속조치를 하고 계신가, 요즘 매스컴에 보면 “지금 현재 한국교육은 너무도 평준화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우등생 지옥이다. 열등생을 기본으로 한 우등생지옥, 열등생 천국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래서는 안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열등생을 위해서 어떤 기준까지의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함니다만은 무한대의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찾아서 하고 있는가. 이는 물론 아까 특성학교에 관계가 되는 얘기가

겠습니다.

여기에 또 이어서 학습관,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어떤 학습관이 올바른 학습관인가? 학력관 이런것이 교육현장의 교사들 학생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반 학부형들, 사회의 통념 이런것이 더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개선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인 개선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한 뒤로 후속조치에 따른 어떤 예산조치가 그에 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세번째는 이렇게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철폐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여러가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씀인것 같습니다만은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런 도시같은 데서는 학원이 있어 가겠습니다만은 농촌에서는 갈 곳이 없다.

물론 집에가서 부모님을 열심히 도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때 거기에 다른 어떤

생활교육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 혼합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생활과 유리된 학문중심이라고 하면 좋은 평가가 되겠습니다만은 학문중심도 아니고 생활중심도 아닌 이런 생활과 유리된 교육을 하는 유례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생활교육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물론 여러가지 교육계획에 보면 좋은 대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느만큼 실천이 되고 있는가? 요즘 말해서 참 너무나 과소비 생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 우선 솔루션범해서 우리 교사들 스스로 혹은 학생들 또 학부형들, 학부형들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봐도 학생들하고 교육자 스스로가 어떤 소비경제 교육을 먼저 시범을 보이고 학생들은 어떤 지도 대책이 서 있는가?

두번째는 질서, 요즘 사회질서가 너무도 문란한데 이것은 우리 교육자에게 책임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때 생활교육중에

서도 질서·예절교육 물론 하고 있습니다
만은 저도 일선에 있어봐서 하고는 있습
니다만 이게 얼마나 실효를 거두었기에
이와 같은 무질서한 사회현상이 벌어지겠
는가?

우리는 뭔가 반성할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독서교육, 학생들이 가을도 되
고 했는데 어떤 독서교육, 독서의 무슨 대
회를 연다던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
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
두고 있는가? 기타 정서교육이라던가 몇
가지 생활교육 전반에 걸쳐서 그 대책과
결과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큰 것으로서는 일선교사들하고
제가 접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얘기를 듣다보면 과연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사와 일반직간에 연
수를 할때 연수 수당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차별이 있다면 있는지 없는
지를 제가 또 질문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

유가 뭔가 하는 것을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큰 것으로서는 제가
어제 기본방향에 대한 예산 구성비를 주문
했습니다만은 거시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
까 59%라는 절대 다수액을 기초과학기술
진흥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물론 청주기계공고 재배치 관
계로 150억원을 투자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보니까 기초과학기술진
흥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은 물론
그 기본방향에 충실하게 따라간다고 보는
데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면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편
의시설이라던가 어떤 장비라던가 기자재
구입등 외형적이라고 할까 하는 그 가시
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만에 치중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학생들, 혹은 교사들의 재교육란에 공무원
자질 향상란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라
던가 교사들의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경진
대회라던가 교사들의 컴퓨터 혹은 다른
여러가지 자질 향상면에서 어느만큼 정말

실효성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운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가지를 크게 다섯가지를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 권혁풍위원의 질의였습니다.

다음에는 이재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 이재희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교사품위 유지는 개인들의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처벌이나 인사조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교원품위의 차원에서 앞으로 좋은 방향에서 처리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는건 간단하게 다섯가지인데 우선 제가 품위유지를 말씀드리게 된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에 당선되니까 모 학부형이 찾아와서 “교육위원님 이런 사례가 있

는데 좀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는 민원사항이 접수된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생활지도 문제로 정학처리는 안되었지만 좀 문제가 있어서 원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에 담임선생님과 주임선생님을 간단히 모시고 저녁식사 대접을 하려고 학교를 갔는데 담임한테는 그렇게 약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담임선생님과 주임선생님 저녁을 모시겠습니다.”

어떤 약속된 식당에 가니까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 몇분이 있는데 더 연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청탁이 있어서 “그럼 부르십시오” 하니까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한 10여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값이 한 20만원 나왔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또 학부형이 “저녁 이렇게 간단히 먹었으니 입가심이나 간단하게 합시다” 하니까 그 담임선생님이 “좋은데가 있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어느 틈새틈을 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사는 것처럼
이것 저것 시켜다 주고 술값이 기십만원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도 좋아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카운터를 갔더니 그 담임선생님이 쫓아
오더니 “아, 마담 내 요전에 술값이 얼마
지?” 해서 외상값까지 갚아 달라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상값까지 갚아주었
는데 그날 저녁값, 술값이 백만원이 나왔
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호소를 하는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품위 유지 관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부형한테 “우리 교육
위원회가 아직 개원전이고 또 학부형이
자녀를 위해서 하루저녁 술값 백만원 쓴
일도 있다는 것을 좀 자랑삼아 가지고 쉽
쉽게 생각치 마시고 재론하지 맙시다”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저도 정말로 이럴수가 있
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품위 유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 간단히 넣어
봤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정말 참 이런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번째 문제는 혹, 이선생님들중에 주
벽이 심하다거나 또는 부채가 많아서 봉급
차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의 원
성을 사는 이런 직원들은 없는지, 또 있다면
이런 선생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첫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오랫동안 교직에
종사하다가 또는 불치병, 난치병으로 이
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미 병가를 2
개월 다하고 수업에 결손을 내면서도 출
근을 해서 학부형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는지, 또 있다면 이런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세번째는 제가 교육위원 당선되어 제천
시내 초·중·고등학교를 순회를 했습니
다.

그런데 상당수 학교 특히 중학교가 교장
관사가 없는데 이 교장관사는 언제쯤이면
지어 줄 수 있는지 또 이 교장관사가 요즘엔
12평인가 13평으로 제한되어서 건축이 된

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가장 영세민들이 사는 주공아파트가 13평입니다.

참 교권확립하면서 교장선생님들 관사를 아무리 예산이 없다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12평, 13평으로 제한 할 것인지 되도록이면 이것은 두채 질것 한채를 짓더라도 좀 교장 관사답게 크게 질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는 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학교는 운동장 바닥보다 교실바닥이 낮은 학교가 있습니다. 또 교장실에서 문 열고 보면 이 스라브 창틀이 다 떨어져 가지고 철근이 보이는 학교도 있습니다.

물론 장학지도라던지 여러 계통을 통해서 보수요구가 들어왔겠지만 교장선생님이 학생이나 또는 다른사람들이 물었을때 이것은 언제쯤 수리가 가능하다는 시원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런것도 계획수립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감사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수 위원 : 예산소위원장을 제가

말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낀것을 몇 가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보고서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단히 적절히 예산을 짜려고 매우 고생을 한, 수고를 한 흔적이 역역히 보였습니다.

저도 과거 실무에 있을 적에 자기가 계획하는 예산이 삭감되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걸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여러 직원들이 계획해서 낸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환대하고 일시차입금 그 두가지만 손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과소비 억제 하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그것이 가장 우리 국민들의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소모성경비, 이것에 대한 10% 절감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그 시기에 교육부로 부터 예산절감을 10%하라는 경직성경비 절감을 하라는 공문지시가 있고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러직원들께서는 반드시 이 10%

이상 절감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과소비는 정부나 행정기
관에서 부터 억제해 주어야 실효를 거들
수가 있을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훑어보면서 “이런것
은 이렇게 고가를 주고 사도 괜찮겠느냐,
제 삼자가 일반사람이 불적에 이걸 말하
자면 너무 비싼 고급물건을 사는것이 아
니야” 하는 인상을 가진 비품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이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
리 행정기관, 정부에서부터 과소비를 억제
해야 되겠고 앞으로 비품이라든지 기타
물건을 샀을 때에는 상식으로 봐서 이런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물품구입이나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도의회에 이 추경예산이
의결이 되서 통과되려면 아마 늦게나마
이제 10월 말경이 가야 통과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11월달에 가서야 이 예산 집
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두어달 간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한 예산을 절차에 맞게 위법6사항이
없이 하자없이 연도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예산편성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반회계에서 이
렇게 생각을 할꺼예요. “과거에도 교육위
원이 있었고 민선 교육위원이 구성이 되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의결하고
관여를 하는데 뭔가 내년도에는 좀 나아
져야 될것 아니야.” 또 일선학교에서 느
낄때 “과연 민선 교육위원이 되더니 뭔가
좀 나아졌다. 실제로 피부로 느낀다” 하는
것을 우선 이 예산면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본청에
모든 예산은 절약을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
교단 위주·학생위주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선학교에서 “참 그야말로 민선 교육위
원이 되더니 과연 뭐가 나아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
좀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어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제 이 교원 연수교육인데 21세기에 앞서가는 교육을 하려면은 가르치는 선생님 아 거기에 맞는 지식이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연수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선생님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에 대한 연수가 아마 절대 필요하고, 그런데에 연수의 중점을 두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교원연수 계획이 어떻게 서 있으며 현재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더구나 특히 선정기준, 대개 그 선생님들중에 대강 저한테도 의견을 말씀하는 분이 있는데 연수를 받고자 하는 그 자기의 업무에 충실을, 자기의 사명을 다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재교육 관계의 자질향상을 하는 연수를 받았으면 하는 희망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정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수 차출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특히 국외연수, 대개 미국의

대학에 보내서 영어 과목에 대한 연수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외 연수에 대한 선정기준과 또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갔다와서 한달간씩 이렇게 영어에 대한 특수교육을 받고 오는데 그 선생님들이 갔다와서 사후에 그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부언해서 부탁 말씀 드릴것은 자질향상을 위한 교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연수계획을 신년도에는 많이 계획을 세워서 연수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박 위원께서 학생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아마 11월 말까지 준공이 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을 제외하고서 어떤한 시설을 거기다 할 것이냐, 무엇 무엇을 시설을 해서 '9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좀 말씀드려 주시고,

또 제가 알기에는 바로 길가가 되어서 무심천 길가가 되가지고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거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과연 그 소음방지를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야? 소음방지 안하고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이나 이런것을 해도 상당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소음방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92년도에 T.O 관계를 정원당국에 신청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어떤 직원조직을 할 것이냐, 거기에 책임자가 있겠는데 직급은 무엇으로 하고 기타 직원의 조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이상으로 신청된 질문은 모두 질문이 되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질문하실 안건 없으시죠?

○ 부의장 김광수 :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예

○ 부의장 김광수 : 너무 시간이 가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지방에서 국민학교의 운동회, 추계 체육회인가요? 운동회 하는 그 현장을 두루두루 봤습니다. 봤는데 이 운동회는 왜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같으면 이 운동회가 그 지역에 축제 분위기가 되서 당당히 그 학교와 학부모와 그 지역간에 화합도 이루어지는 그런 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촌지역에 이농 현상이 생겨서 우리 옥천군 국민학교 25개교인데 25개교중에 100명이하되는 학교가 열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놓고서 운동회를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볼적에 딱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봐서 사람이 많이 모일때가 아니고 바쁜 때이고 이렇다 보니 학생들 100여명도 안되는 애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부형 한 너댓분이 나와서 그 운동회라고 하는 것을 볼적에 이거 이

렇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몇년전만 하더라도 4-5년전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운동회는 추석 다음날 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있던 사람도 돌아오고 해서 그 지방의 축제 분위기가 사실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석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운동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는 찾아볼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들이 적은 학교에 글썄 150명, 200명 큰 넓은 운동장에 그것만 좀 왔다 갔다 하고 부형들 몇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 그것이 뭐 강요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교육청에서 자율로 말기지말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추석때 이렇게 운동회를 기왕 한다면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의 축제라고 할적에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도 화합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회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애향심도 길러주고 또는 그 학

교를 떠났던 분들이 돌아와서 지방에 모여서 애교심도 길러주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요즈음 몇 군데 학교를 보니까 추석 다음날 하는 학교를, 교장 재량에 의해서 한 몇군데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 학교는 분명히 그 지역의 축제분위가 조성이 됐다고 하는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결드려서 말씀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율에 맡긴다고 할 적에 그것을 유도해서 기왕 운동회를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역시 위에서 교육청이나 교장들에게 강요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권이라던가 또는 그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못할지 모릅니다만은 또는 일부 선생들이 “왜 우리도 추석을 세야지 추석도 못세계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불만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

가지로 선생님은 그러한 특수한 사명감과 그러한 어떤 봉사심을 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또는 타공직자로 볼적에 경찰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명절이라던가 어떠한 특수행사가 있을 것 같으면 하루이틀이 아니고 몇일씩 더 이렇게 특근을 한다고 하는 사례도 덧붙쳐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선교사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얘기가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기히 운동회를 한다고 할 적에 이래야 축제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들여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음은 본 의장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이 토론에 참석할 적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질문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석에서 그냥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과 더불어 당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릴적에는 우선먼저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이 적정화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기 위해서 여기에는 인적요인, 재정적요인, 모든것이 구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소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재정적인 요인은 차치하고 먼저 인적구성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직원이 7명에 불과합니다.

이 7명의 인력으로서로는 도저히 교육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운영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 전제적으로 드리고요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에 필요 불가결한 꼭 필요한 이런 인원으로 첫째, 전문위원이 없어요. 다음에 속기사가 없어요. 의회기능을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자면은 속기사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속기사가 현재 없습니다.

또 일반직, 기능직하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 이전에 우선먼저 인력의 부족현상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회에만 하더라도 도의회 의사국의 인원이 25명이 예요 25명 구성되서 발족한 이후에 이번에 다시 14명이 증원이 됩니다.

14명 증원이 된 중에는 전문위원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도 증원되고 또 거기에 따른 속기사도 증원이 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러한 전문위원이 장학 또는 여러가지 관리행정면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위원이 확보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어떤 사무인력이라도 보충이 되어야겠는데 그러한 인력조차 없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운영에 절대 필수적인 속기사마저 없는 형태이니 이러한 인력확보가 우선 급선무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서에 먼저 이러한 인원 증가에 대한 요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장충호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말씀을 해 주세요.

○ 장충호 위원 : 저는 아직도 전반적인 면에서는 백지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집행부에 당부점 그동안에 모순된 점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만간에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인사규정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 농촌에는 신규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고 또 양호교사 같은 사람들도 실은 그 농촌에 오지·벽지에다가 많이 보내서 학생들이 거기에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 실제 교통이 편리하고 양호교사가 없어도 갑작스럽게 병환이 난다든지 하면 병원으로 쫓아 갈 수도 있고 한 도시에는 인원을 좀

감하더라도 농촌에 양호교사도 좀 많이 보내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것 같으면 단양 공고 기숙사가 지금 7년만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84년에 시공이 되어가지고 일단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87년인 3년뒤에 가서 또 이것이 되었다가 이제 이번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7년이 걸립니다.

이러한 것을 불적에 집행부에서 역시 도시 위주로 농촌을 등한시하는 그런 감을 저는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촌, 제가 도 교육위원이지 단양 교육위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신규 선생님들 많이 보내지 마시도록 하시고 또 그러한 시설 이런 면에서도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양호 교사도 많이 좀 농촌에 보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점 요망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다시 보충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질문하실 분은 보충질문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12시 18분)

○ 의장 김영세 :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다시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 국·과장님께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 초등교육국장 홍영창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번째 박병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교육 강조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은 넷 파트로 나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의무적인 정신교육분야, 자체교육을 통한 정신교육, 세번째는 교육부 지시에 의한 정신교육 문제, 시사성 제고를 위한 정신교육문제, 네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에 의무적인 정신교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연수 과정에서 10%를 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0시간 연수기간이면 그 중에 12시간은 의무적으로 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에 자체교육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5월 13일날 각 교육청 회의실에서 교원을 대상으로한 교직원토론회인 정신교육이 있었습니다.

여기 참여 인원은 896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지시에 의한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통일교육원에서 본도 3명이 요원교육을 실시해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시사성 제고 교육은 국경일을 중심으로한 학생 뿐만 아니고 교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원이 새로운 각오와 의식에 변화를 수반해서 새 교직 풍토를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측면에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김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학교 특활영어 및 컴퓨터 교육을 위한 유능한 교사 확보 현황과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활영어 지도교사 현황입니다.

매년 방학중에 교육청별로 1교 1명씩 선발 30시간 정도 연수를 실시해서 지도교사 양성을 하였습니다.

'91년도 금년도는 미국 치코대학에 파견해서 5주동안 현지 연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한명, 본청에서 장학사

한사람 해서 열두사람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지도교사 확보 현황입니다.

컴퓨터는 제5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국민학교 4학년 실과교육 과정에 처음으로 컴퓨터 교육이 삽입 되었습니다.

이래서 도내 전 학교에 컴퓨터 특별활동 시간을 설치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 교사 확보 문제입니다.

'81년부터 매년 컴퓨터 일반연수를 시·군 교육청별로 실시해서 현재 이수자는 69.4%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180시간 이상 전문과정을 이수한 교원은 14명으로서 연수강사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8bit가 3,309대, 16bit가 2,493대, 이래서 기준의 67.8%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보유현황은 전국적으로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지도교사 확보 대책입니다.

단재교육원에 국민학교 특활영어 연수

과정 설치·운영을 내년부터 실시를 합니다.

시간은 120시간이고 '92년도에는 110명, '93년에 110명, '94년에 121명, 합계341명 해서 모든 학교에 한사람씩, 대규모 학교에는 2 - 3명씩 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요원으로서 미국 치코대학에 현지 연수는 '94년까지 48명을 연수시킬 계획입니다.

1년에 12명씩 연수를 시키게 됩니다.

이 미국 현지 연수를 한 48명이 단재교육원에서 연수할때 요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지도교사 확보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까지 교사 전원이 컴퓨터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받습니다.

내용은 시간이 60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데 '96년까지 1교 1명씩 연수를 해서 324명을 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격증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영어 지도교사나 컴퓨터 지도교사나 자격증을 부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이들은 이수증을 부여하고 그 분들을 특별우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인사규정에 연수를 마친 분에 대해서는 1점을 가산 전보에 우대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김응복위원님께서 역시 질문하신 신규 임용교사 보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문제 협의하실 때 거시서 6백20만원이 삭감된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
다만 이것은 연수 자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강하는 분들의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6백20만원은 삭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는 예정대로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 '91년 2월20일부터 2월22일까지 2박3일동안 단재교육원에서 359명에 대한 신규교사 보수연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학교 교사가 153명, 중학교가 206명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임용교사의 보수교육은 '92년부터는 10일로 연장해서 지금현재 2박3일하던 연수를 내년부터는 10일동안 장기간 연수를해서 교원에 봉직하기 전에 사명의식을 고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교육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절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먼저 세미나 때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절제교육은 본도에서 제창, 중앙에서 좋은 시책으로 채택 대통령께 보고한바 있고, 전국적으로 파급된 내용입니다.

방향은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로 사회 기풍을 조성하자는데 있고, 지도내용은 과거를 탈피해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과소비 풍토를 일소해서 경제교육을 철저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무질서 생활을 순화시켜서 질서생활을 하도록 질서

교육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정서교육에 이바지하자는 문제이고,

네번째는 삶에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교육에 힘쓰는 내용들입니다.

그 세세한 지도내용은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책으로서는 이 네가지 영역을 학교 교육활동, 교과활동과 관련시켜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별도의 시간을 특별해서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활동과 관련지어서 지도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의 연계지도 없이는 소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연계 지도에 인력을 다하고 청소년 문화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사 품위손상 문제, 주벽과 부채 현황 및 대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입니다.

“91년도 교원 품위손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원 2명, 중등학교원 7명을 경고 및 주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교사로서 품위 유지를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직장교육을 통해서 사명감을 고취하도록 정신교육을 강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다 부채로 인한 품위를 손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무분별한 보증을 잘못서서 봉급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 지도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두명, 일곱명에 대한 아홉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가기간 초과교원 수업결손 대책과 해당교원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결손 대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가기간중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임시교사를 임용하되 예산 형편에 따라서는 증치교사로 하여금 학급을 담임하도록 하여 수업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교원의 처리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첫째는 법적 병가기간 2개월이 종료된 자가 완쾌되지 않아 수업에 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간 휴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경과후에도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완쾌되지 않았을 경우는 의원 면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학년도에 의한 면직을 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김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교원연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는 종류도 많고 인원도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의 종류는 자격연수, 일반연수, 기타연수, 국외연수, 신규임용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초·중 다 합해서 4,278명이고, 현재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4,195명 입니다.

9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미실시한 인원은 국민학교 교감 43명, 중학교 교감 22명은 겨울방학때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국민학교 교장반 10명 중학교 교장 8명은 후반기에 교육을 받도록 되있어서 미실시 인원이 됩니다.

다음은 선정기준 입니다.

자격연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정은 3년이상 경력이 있으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학교 경우 3년 10개월로 끊어서 금년에 60명을 여름방학때 1정 강습을 시켰습니다.

중등은 교과별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다양하게 되어있고 인원은 278명을 연수 시켰고 교도교사 40명이 이미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연수는 현직에서 10년이 경과하면은 연수받은 내용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또 연수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학실험, 컴퓨터 교육 이것은 5년 주기로 모든 교사들이 연수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는 금년에 유치원 두사람, 국민학교 43명, 중학교 52명, 계 97명을 연수 완료했습니다.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89년, '90년 최근 교육실적 거양에 유공한 교원들을 우선 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은 특별활동, 예·체능에 유공한 교원 또 저희들이 예·체능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한 교원, 또 학습지도 우수교사, 과학기술 유공교원 이런 분들을 우선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모든 연수를 아까도 5년 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반연수는 5년 주기로 해서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관리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자체 자기 자질연수로 되어 있고 그 연수가 끝나면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치코대학에 갔다 온 그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협의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교제도 개발하고 또 지도하는 방향도 설정하고 모든 연수의 강사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연수 이수자는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인사 규정에 전보 가산점을 부여해서 일반연수를 모두가 다투어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가을운동회 개최 시기 문제입니다.

사실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중추절 익일날 운동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희망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일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외면하는가?

중추절 전후 3일간의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객지에 가 있는 선생님들이 자기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피를 하는 현상입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추석 이튿날 얼마만큼
운동회를 개최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총 324개교 중에서 86개교
26.4%가 중추절 다음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그러면 어떤가?

농촌지역 국민학교 279개 학교 중에서
86개교 30.9%가 중추절 이튿날 운동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생님들의 이해를 촉구하
고 해서 고향의 축제가 되도록 중추절 다
음날 운동회를 개최하도록 저희들이 권유,
이해를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군별로 보면은 음성군이
62.5%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높은데가
보은이 57.7%, 영동이 42.3%가 중추절 다
음날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교사 단양 배치 문제에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9월 1일자 저희들이 79명 신규자를 배
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배치 현황을 말씀드
리겠습니다.

청주에는 배치를 안했고, 충주에 열다섯,
제천에 열여섯, 청원은 신규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보은 다섯, 옥천 여섯, 영동 셋, 괴산 일곱,
진천은 없습니다.

음성 열셋, 단양 열네명, 이렇게 시군에
비교적 고르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제천·단양에 너무도 신규교사가 많이 배
치 되었기 때문에 경력자가 배치되도록
독단의 배려를 하고 있고, 이번 9월 1일자
79명 배치 하면서 시·군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런 면에 독
단의 노력을 해서 신규교사가 단양·제천
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옴)

○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 중등교육국장

나세웁니다.

중등교육국에 해당하는 사항은 여덟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첫번째로, 김광수 부위원장님과 권혁풍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의 현황과 대책,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 사항, 유사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애당초에 '85년부터 시행해서 왔습니다만은 학생들의 결손 학습의 보충기회를 제공해 주고, 두번째는 학습 부진학생의 학습을 보충해 주고, 세번째는 과외 욕구를 학교내에서 해결해 주고, 네번째 자율학습 장소를 제공해 주는 등 그러한 면으로써 희망하는 학생에 희망하는 교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에서 과열 과외학습과 과열 경쟁에 입각해서 현재까지 학교장에 의해서 과열로 획일적으로 그렇게 해 온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94학년 부터 대학입시에 대한 대폭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학습관과 학력관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본 교육청에서는 이미 배부해 올린 보충지도와 자율 학습의 운영지침에 입각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진아 지도라던지, 또는 유능한 영재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을 하는 그런 분야는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좀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참된 학력을 평가하는 입시제도의 개선과 학부모와 학교의 참다운 학력관의 정립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곧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첫째로 지속적으로 학부모, 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하며, 두번째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자기 학습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세번째로 그 외에 교육방송의 적극적인 활용, 과제학습의 여행, 크립활동의 활성화, 또 영재집단의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참다운 학력의 신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부진아 지도에 대한 예산 조치는 육성회에 각 학교별로 실정에 따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말씀 올리고, 두번째로는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학교 체육교육 계획과 여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말씀 드렸던 주요업무 보고에는 중요사항만 기술되었고 세부적인 계획은 생략되었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 체육교육에 대해서는 매년 1월초에 교육부와 체육청소년부에서 내려오는 학교 체육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각 학교에 체육교육 기본방침을 시달해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수시 장학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약간 말씀을 올리면 첫째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둘째 체육 교사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셋째 체육의 생활화 운동 전개, 넷째 학생 경

기대회 그래서 학교간 경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22일, 23일 양일간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 시설의 확충으로서 금년도 88%의 시설기준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체육특기자 관리철저, 그래서 우수 선수들은 대학진학 또는 취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교육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학년초에 실업교육 계획서에 별도로 여성 교육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배부가 일선에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첫째가 건전한 가정생활 교육과 실습을 통한 대화 그리고 두번째가 생활관 교육의 내실 그래서 생활관 수련 지침서를 600부를 인쇄를 해서 일선에 배부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족관계, 의식주관리, 생활예절, 전통예절, 여가선용, 심성부양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가 생활관을 거치는 학생들이 중
·고 학생들 24,702명이 금년도 6월30일
로서 완료가 되어 있고, 생활관이 없는 학
교는 생활관 중심 학교를 규정을 해서 6
개교에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규정을
해서 4,577명이 생활관 교육을 전부 받아서
금년도 계획 인원은 100% 생활관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
다만은 생활관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생활관을 지어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낭비성을 가져오고 또 현재 있는 학교에
서도 연중 풀가동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연구끝에 새로 창안한 것이 중
합생활관 건립을 해서 없는 학교 학생들
에게 학년별로 동시에 3박4일에 대한 생
활관 교육을 받도록 구상한 것이 폐교된
국교 및 분교를 활용하고 거기에 신축을
해서 북부 지역의 단양, 제천, 충주에 생
활관이 현재 20% 밖에는 건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학생들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부지방은 진천종합야
영장에다 건립을 하고, 또 남부지방은 옥
천야영장에다 건립을 해서 공동 관리하도
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학습관과 학력관을
전환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
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수학습 방법은 이미 아시
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급학교 입시준비를
위한 그런 교사중심이고 암기위주고 피동
적이고 주입식인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참다
운 의미의 교육계획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습방법을 전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번째 과제가 학생의 탐구력,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켜서 자기 학
습력을 길러주는 것이고 다음의 학력관도
지금까지 입시 준비를 위한 교과서 암기,
지식 암기등 지식편중의 입시방편, 입시
방편 교육에서 좀 더 새롭게 학교교육, 사
회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응
용력, 종합력, 분석력, 창의력 등 고등정신

기능을 신장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진정한 학력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도 이와 같은 학력관을 가지고 학생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즉 생각하고, 짓고, 만들고, 키우고, 뛰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일반고교의 재학생중 영재에 대한 교육계획과 이를 위한 일반계고교 신설계획은, 이미 본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 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은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에 예능과 그 다음에 다국어과 또 앞으로 '92년도에 설립될 중산고등학교에 다국어과 또 현재 충주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문고등학교 안에 다국어 특별 활동 또는 다국어 지도, 이것이 일반계 고등학교 내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써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 사회 분야에 대한 고등학교에 영재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냐?

지금 영재교육에 해당하는 영재성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서 현재 본청에서는 국민학교 때에서부터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생을 발굴을 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드작성 내용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서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해서도 그 분야에 따르는 영재교육을 받도록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을 통해서 또는 영재반을 편성을 해서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계 고등학교 청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어떤 학교를 비평준화 지역인 분야에 이전해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할 것을 연구·검토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취미·특기·소질 신장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으로 봤을적에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에 있어서 해오고 있는것은 특별활동을 통해서 또는 직업과정 운영을

통해서 또는 실고학생들에 대한 실습 주도를 위해서 등등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질과 적성 개발을 위한 예·체능 및 외국어 특성화 고교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학생의 취미와 기능 신장을 위한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 거기에 따라서 시범학교 운영 그다음에 특활우수 운영 교사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창은 1년내내 장학협의회를 거쳐서 담당 장학사님들의 평가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서 12월달에 시상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째가 비진학 학생을 위한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운영의 확대입니다.

거기에 능력과 적성, 학력, 가정 환경을 고려한 실업계 고교 진학을 권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에서 '93년 3월 1일이면은 실업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비율은 50대50이 되고 직업과정 운영교까지

합친다고하면은 거꾸로 49대51이 될걸로 내다봅니다.

그 다음에 충북학생회관 건립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안에 내부에 교육연구원의 신축계획안에 대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청주기계공고에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청주기계공고에 이전이 완료되면 거기에 활용했던 기숙사와 과거에 간호학교 건물을 보수 개축을 해서 교육연구원이 그 자리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학교육원도 그 자리로 이전을 해서 중심가로 와서 학생들이 수시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권혁풍위원님께서 특성화고교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남녀 공학에 따른 생활지도문제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특성화 고교 운영에 대한 것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만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 체육고등학교 '91년 3월 1일 금천
고등학교하고 병설되어 있던 것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의 업적은 '89년도
7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이 2, 동이 3개로
도내 고교에서 획득한 메달수입 11.9%를
획득했고, '90년 7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11, 은 7, 동 13, 총 31개로 메달 획득의 3
5.6%를 차지해서 체육고로써의 위상을 공
고히 했습니다.

또 전국 9개 체육고 71회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분석한 결과 종합순위 3위를 획득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한편 국가대표 선수
2명을 배출했고, 또 현재로서는 지상준 수
영, 이영선 투창, 김완일 역도, 나은진 육상,
최은자 역도 등 5명이 지금 국가대표 선
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72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획득전망은 금 9개, 은 11개, 동 15개, 서른
다섯개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보다 '91년도에는 4개
정도가 더 획득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예능과와 다
국어과는 운영한지가 불과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지만은 예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해서 소질과 창조력을
계발함으로써 이것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게 크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국어 분야하고 예능분야에 대
한 소질이 다분히 계발이 되고 대학입시
에도 큰 성과를 올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
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89년도 3월 6일날 개교를 했습니다.

30명씩 해서 2크라스 60명으로서 개교를
봤고, 그 개교를 본 결과 '91학년도에 과
학기술대학에 65명중 45명 80%가 입학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중에 2명은 타지역으로 인문
고로 전환을 하고 13명이 현재 내년도 과
기대 응시에 8명, 일반대 5명이 진학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와 '91년도에 걸쳐서 전국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90년도에는 6명이 입상을 해서 은·동을 차지했고 '91년도에는 3명 입상을 했는데 금·은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수학·과학경시대회에 금·은을 차지하는 것은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에 있어서 남여 공학에 따른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비공학으로 학생의 고입입학후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는 자기 과사 의모에 지나치는 관심과 중성화 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 실제문제에 따르는 생활불편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으로서 첫째 생활관 교육 및 예절교육의 충실과 절제 교육의 강화, 둘째 새로운 이성관의 정립을 위한 시대적 성교육의 추진, 세째 정서교육의 내실화와

남여공학에 필요한 연차적인 시설의 보완이 요망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한 그러한 현황을 권혁풍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연수비가 국·중·고 합쳐서 2천3백8십2만원이 됩니다.

실험보조원 인건비가 한 1억4천9백8십5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 확충비가 5천만원이 되고 교구확충비가 2억4천2백2십5만9천원이 됩니다.

실험실습 재료비가 1억4천7백2십2만3천원, VTR 보급비가 2천7백3십만원, 자료실 운영비가 5천5백만원, 컴퓨터 '91년도 보급비가 2억6천7백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 연수경비가 4천6백5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0억9백5만3천원이 기초과학 운영비로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사수위원장님께서 학생회관의 '92년도 시설운영 계획과 소음방지대책과 학생회관 직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운영 계획은 연 면적이 4천7백2십4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5층, 강당 1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운영은 도서관, 소극장, 공연장, 전시실, 음악실, 사회교육실, 체육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관예정은 내년 1월이후 정원이 확보 되는대로 운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음방지 대책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연구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생회관의 직제는 3과 2계로 총무과, 운영과, 도서관과를 두고 총무과 밑에 서무계, 관리계로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정원은 관장 지방서기관이 되고, 그 밑에 39명의 인적 조직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김근학 : 관리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권혁풍위원님께서 교원과 일반직 연수여비 차이 이유 및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원 및 일반직의 '91년도 연수비 지급 실태를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니까 통근 가능 지역에 대해서 교원은 1일 3천원, 일반직이 2천8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통근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교원이 8천원, 일반직이 7천8백원으로 되어 있고, 관외 타도에 대해서는 교원이 만원, 일반직이 만오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원과 일반직간에 연수여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교원의 연수 여비는 자격연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격연수는 연수를 받은후에 교원들에 대한 보수 및 신분상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본인이 일부 여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일반직의 직무교육은 공무원의 자질향상 시키기 위해서 5년마다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격연수는 본인들이 좀 여비를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은 여러교원들께서 불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92년도부터는 자격연수나 일반연수에 구분없이 관외 연수의 경우 일반직과 같이 1일 만오천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연수의 여비 관계는 교육부에서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본인들이 대학원을 다닌다던지 다른 기관에 가서 연수를 해올 경우에는 연수실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자격연수인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다던지 하는 것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재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희위원님께서 교장관사의 신축계획 및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장관사를 지금 확보하지 못한 곳은 청주,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17개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17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억 9천1백만원을 들여서 전부 사택이 없는 지역을 일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역에는 대부분이 또 연고지가 제천지역에는 연고를 가진분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그 사택을 지어드린다하더라도 관리를 만분들한테 맡기고 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천지역이나 시지역에 사택을 짓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바닥보다 교실바닥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 여러가지 교육환경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고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교의 재배치 계획이라던가 할 경우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보수 즉 창틀이 보이는 학교가 있다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창틀 교체라든가 이중창 설치하는 교육 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내년까지 전부 교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사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당부 말씀 계셨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10% 이상 절감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과소비를 억제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절감되도록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아마 교육위원회가 개원이 되고 또 직제가 개편되면서 고가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예산상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걱정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약간 고가인 듯 싶습니다만은 이것이 1 - 2년 쓰고 말 것이 아니고 연간 10년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큰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들 교육감실에 있는 그 소파라든지 비품은 30년전에 구입한 것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위원실에 구입한 그런 비품도 앞으로 30년 한 50년 정도 쓴다고 하면은 별로 비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경이 도의회 통과가 10월말경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이 2개월뿐이 남지 않았는데 가능하나 하는 말씀도 당부에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예산절차를 준수해서 연내에 모든 사업이 원만히 종결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절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편성은 건전하고 알뜰하게 편성을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예산편성 지침이 나가서 예산편성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되도록 이렇게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은 예산을 절약하고 일선위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하

라는 말씀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세의장님께서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 기능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를 피부로 절감하고 이미 교육부에 9월12일날 정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으로 5급상당으로 1명 또 6급 1명, 7급 1명 또 속기사 2명, 기능직 1명 해서 여섯명을 이미 교육부에 정원 증원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저희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같이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있을적 마다 교육부 관계자에게도 말씀을 하고 또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속기사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절박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속기사 문제가 바로 해결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일용잡급이나 다른 방안을 대체해서라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충호위원님께서 단양 도·농간에 교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사규정이란지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양공고 기숙사가 7년만에 완공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문제는 단양공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차일피일 미루다 이렇게 늦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도·농간에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걱정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희위원 위원석에서)

○ 이재희 위원 : 국장님 지금 교장사택의 규모가 12평, 13평 이렇게 하는데 이를 더

크게 할 수는 없습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아 그게 빠졌는가요?

교장사택 규모는 교육부에서 그 교부단가가 지금 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6백만원을 가지고 짓는다면은 12평정도인데 우리도에서는 그것이 너무 적기때문에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7백만원을 보탬습니다.

보태가지고 짓는다면이라도 그것이 지금 13-14평 정도 뿐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적은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도에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그것도 보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에 재정형편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답변 다 되셨습니까?

○ 이재희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그러면 여러위원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

예, 박병해위원 말씀하세요.

○ 박병해 위원 : 지금 답변을 아주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만 총괄적으로 다시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보고서안에서 여러가지가 아주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소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으로 학교로 학생한테 얼마만큼 침투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을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나 여러가지를 살펴 보았을때 아주 참 요원한 감이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 과소비 무질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기대하는 것은 교사들입니다.

만일 전쟁이 났다고 해도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나라는 바로 일조일석에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교육관계도 사실상 교육을 하면은 그 교육이 얼마만큼 학생들에

게 침투가 되느냐 올바른 교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얼마큼 좋은 국민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또 소질 신장관계 여기 계획서를 보면 아까 답변하는 것도 여러가지 학교가 많이 서고 나중에는 51%, 49% 뭐 이렇게 되어서 실업교육이 많이 된다. 사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볼때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현실로 봐서 비진학자들이나 영재에 빠지는 아이들은 그야말로 그대로 집에 갑니다.

뭐 내일이라도 모래라도 당장 학교에를 나가보시면 당장 느낄거예요.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 또 비진학자 이 아이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가 학교에서 아무 조치도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또 어제께도 생활지도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느라고 한건데 생활지도가 제대로 되는것도 아니면서 그냥 방치해 논다고 하면은 또 국가에서 바라는 국제화 문제가 외국어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학생들이 크면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럴때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것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에는 숫자나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질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도 좀 파고들어서 얘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 계획을 할때에는 그런 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또 학습관이나 학력관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중요하게 이 교육청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밑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또 학교의 운영 계획서도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고 여기서는 많이 얘기가 되었는데 밑으로 내려가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 이것은 또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기서 기왕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하면은 말단 학생들한테 직접 영향이 가도록 이런 어떤 방법이 모색되었으면 이렇게 욕심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 의장 김영세 : 박명해위원 권고사항

입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까?

○ 박병해 위원 : 권고사항입니다.

○ 의장 김영세 : 권고죠?

답변 필요 없죠?

○ 박병해 위원 : 예.

○ 의장 김영세 : 다시 보충질문 있으신분 말씀하시는데 간결하게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거수로 발언 신청)

○ 부의장 김광수 :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충수업에 관해서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이 정책이 지금 그렇게 해 왔다고 대학입시제도 문제나 또는 여러가지 교육정책이 사실상 조령모개 식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입시제도 문제도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또 변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점에서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굳이 충북만이 보충수업을 앞서서 없애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

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더 답변을 듣고싶고 또 일문일답식으로 해 나가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면질의로 대신 할까 합니다.

○ 의장 김영세 : 김광수위원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시간도 오래되고 이제 그래서 더 보충하실 것이 있으면 앞으로 서면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3일간의 회기 동안 적극 협조 하여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김영세 : 이어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3시 23분 폐회)
○ 출석위원수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김광수, 위원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부교육감 정인영, 초등교육국장 홍영창, 중등교육국장 나세웅, 관리국장 김근학, 공보담당관 신태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상찬, 행정관리담당관 정현동, 총무과장 이근수, 초등장학과장 채선병,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장학과장 윤혁중, 중등교직과장 심태섭,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상익, 행정과장 엄갑도, 재무과장 고일영, 시설과장 박성근.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별첨5.	

예 산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6일(목요일) 16시47분

의 사 일 정 (제1차 예산소위원회)

1. 경과보고
2.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3. 안건심사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위원장(김사수), 간사(이상일) 선임
3.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16시47분 개의)

니다.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교육위원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

먼저 교육위원회 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사회는 최연장 교육위원이신 김사수위원
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

겠습니다.	
(16시48분) 2. 위원장, 간사선임 ○ 임시위원장 김사수 : 지금부터 제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예산 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각 1인씩 두되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예, 좋습니다. ○ 김응복 위원 :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김사수위원님, 그리고 간사에는 권혁풍위원을 추천합니다. ○ 권혁풍 위원 : 저는 숫자에 어두워서 간사로는 부적당합니다. 저는 이상일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위원장에는 저를, 그리고 간사에는 권혁풍, 이상일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만, 권혁풍위원님이 사양하므로 저와 이상일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사수위원이 간사에는 이상일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50분) 2. 추경예산안 심사 ○ 위원장 심사수 :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부의된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는 본회의가 휴회하는 내일까지로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질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만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의와 학교의 건의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지매입비로 계상한 150 억원은 도청과 협의중에 있는 첨단공업단지내에 신설할 충북공고 설립을 위하여 교육부에서 교부된 것으로 이것으로는 부족하여 청주기계공고를 매각하여 학교를 이전하고 남는 자금을 충북공고 설립하는데 쓰고자 합니다.

○ 권혁풍 위원 : 제가 듣기로 음성에서 어느 독지가가 재원을 충당하여 공전을 세운다고 들었는데 공고를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예, 학교규모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250억이상 소요됩니다.

○ 간사 이상일 : 행정소송비 8,700천원중 충주삼원국민학교건도 포함된 겁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아닙니다.

○ 위원장 김사수 : 학생회관은 5층까지 금년에 완성되는 겁니까?

충양도서관도 있고 한데 위치도 안좋은 곳에 학생회관을 세우는것 같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청주기계공고가 이전하고 학생회관이 완공되면 학생들의 독서등 문화공간으로 활용도가 좋을 것입니다.

○ 이근수 위원 : V.T.R도 가격차이가 많습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실지 소모성경비는 2억내지 3억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과소비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심사했으면 합니다.

○ 행정과장 엄갑도 : 교육부에서도 소모성경비에 대한 10%를 절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현재 추정안대로 의결된다해도 그중 10%로는 절감 해야되기 때문에 10% 삭감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각과에서 실지 필요한 만큼의 예산요구한 것을 저나 국장님 심의과정에서 많이 조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구액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근수 위원 : 교육부에서 목적교부금(시설비)이 교부될때 어느학교, 어느목적에 쓰라는 식으로 교부됩니까?

○ 위원장 김사수 : 내일 오전까지는 심사를 끝내야만 오후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8일 제2차 본회의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본회의 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취지설명을 듣지 않기로 하고 본회에서 질문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 생산 매각대는 해당 학교에 환원되는 것입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예, 그렇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음성고등학교 정구장은 보수할 부분이 없는것 같은데 예산에 시설비를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엄갑도 : 금년 수해때 철망이 파손되어 복구재원을 음성군청에서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 권혁풍 : 음성고등학교에 기숙

사를 건축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확보된 겁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독지가가 지원해준 것으로 압니다.

○ 김응복 위원 : 직제개편에 따른 비품 구입비나, 수용비 등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본청에 너무 많이 편중된것 아닙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본청 뿐만이 아니고 학교의 몫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청주기계공고 이전 부지 확보비로 150억을 계상했는데 시설 결정도 되지 않고 계상하여 시기적으로 늦어 명시이월이 되지 않을까요 ?

○ 행정과장 엄갑도 : 과거에는 시설결정을 먼저 하도록 되었었는데 지금은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80% 이상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입승락을 받아야만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예산확보 해야만 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청주기계공고를 매각하여 이전할 계획입니까 ?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그렇습니다.

청주기계공고의 이전문제는 시내중심지로 교육환경이 좋지않아 동창회 등의 건

○ 관리국장 김근학 : 작년까지만해도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목적교부금으로 오는것은 같지만 한 덩어리로 묶어서 교부가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하여 교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현재 예산을 보면 시·군 예산도 통합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자료는 시·군에서 제출합니까?

또한 시·군에서 작성할때도 각 학교에서 예산편성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는가요?

○ 행정과장 엄갑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을 시행전에는 시·군별로 예산편성권이 있었으나 광역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예산편성권이 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본청에서 통합편성하는 것이며 시·군에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 편성하고 있고, 시·군에서 예산편성자료 작성시 학교에서 별도 예산편성자료를 받지는 않고 있지만 학교별로 교급당경비는 기준대로 배분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특수목적비는 다소 차이가 나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에 계상된 교원연수경비 33,961천

원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이미 연수를 실시한 경우도 일부 포함 되었고 겨울방학에 연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늦은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시·군교육행정자문회 운영에 대한 집기 구입비 등이 계상된 시·군이 있는데 언제까지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교육청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가 계상되고 어느 교육청은 계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엄갑도 : 교육부에서 언제 구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으나 10월중으로 구성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계상되지 않은것은 지역특성과 교육청의 규모에 따라 교육청에서 요구한 것이며 그 요구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이근수 위원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같은 것은 있습니까?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91년 8월 16일 규칙이 제정되었고 현재 3개·시군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우리교육위원회도 사실은
교육청소속 교육위원입니다.

따라서 교육행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되면 우리교육위원이 참가해야
되는 것입니까 ?

○ 관리국장 김근학 : 필요 없습니다.

○ 이근수 위원 : 현재 영동해보면 교장
사택이 없는곳이 있는데 도내 사택현황은
어떤가요 ?

○ 행정과장 엄갑도 : 벽지지역은 100%
있고 시내지역은 실정에 따라 아직 준비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곳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
선 급한곳부터 단계적으로 건축 또는 구
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응복 위원 : 보은상고 교장사택은
있는가요 ?

○ 관리국장 김근학 : 지금 건축중에 있
습니다.

○ 이근수 위원 : 영동읍내를 보면 어느
학교는 교감사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영동
고 같은 경우는 아직 교장사택도 없습니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것 같은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영동고 사택건축을
위한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학교에서 아
파트를 구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으로 곧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괴산지역만 체육관을 2곳이나 건축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지역 안배가
안된것 아닙니까 ?

○ 관리국장 김근학 : 추경예산안에서만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 제천군에 4억이 계상되어
있고, 보은농고에 박준병위원이 3억을 지
원해 준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 청사수선 및 전화시설
비로 41,74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곧 할
것입니까 ?

그리고 전화시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

○ 행정과장 엄갑도 : 청사는 배관등이
낡아서 곧 해야하며, 전화시설은 교환대
교체비로 2년전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때
방송통신대학에서 시가 1억여원 되는 것을

무상으로 관리전환받아 시설한 것인데 지금은 낡아서 혼선이 자주되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지금 계상된 사업비중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나 한번 더 살펴봐 주시지요.

○ 관리국장 김근학 : 예, 다시한번 검토한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 카폰구입비는 어느차용입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부교육감 차입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본회의도 2시간이상 참석하시고 소위원회도 1시간이상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을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자 오늘밤에 더 검토들 하셔서 내일 오전중 모든 심사가 끝나 오후에는 심사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예산소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응복, 이근수, 권혁풍

○ 출석공무원 : 5명

관리국장 김근학, 행정과장 엄갑도, 예산계장 김홍묵, 의과과장 이영규 외 1명

예 산 소 위 원 회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7일(금요일) 10시 24분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소위원회)

1. 안전심사

부 의 된 안 건

1.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가결

(10시24분 개의)

○ 위원장 김사수 : 모두 참석 하셨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예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협의내용을 정리해보면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되 각과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소 조정하는 방향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집약 되었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제가 말씀드리지요
일시차입금이자 109,589천원중 7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시설과장의 의견을 들어본 후 시설사업비를 검토하여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것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다소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과장 가능합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91년도 3개월밖

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별문제점이 없을것입니다.

○ 이근수 위원 : 우리가 예산을 삭감
하는 방안만을 생각하는것 보다는 집행기
관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저도 같은 생각입
니다.

우리가 집행기관을 도와 충북교육을 잘
되게 하고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차입과 기채는 틀립니다.

기채는 예산이 없는것을 금융기관에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일시차입은 예
산에는 있으나 우선자금이 부족해 연도내
에 갚을 수 있는 것을 금융기관에서 우선
융통해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차입금 109,589천원중 70,00
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리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이근수 위원 :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일동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일시차입금 109,589천원중 70,000천을 삭
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시·군예산은 다수가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그전에는 인건비라든가 불용액이 있으면
해당 시·군에서 교육장의 재량으로 필요
한 과목에 사용 할 수가 있었는데요

○ 행정과장 엄갑도 : 인건비는 도에서
총괄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90년도 4월1일자
통계를 기준으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91년 4월1일 현재 통계에 의하면
농촌지역에는 학급수가 감소되고 도시지
역은 증가되어 자연히 농촌지역은 교사가
감소되므로 인건비가 줄고 도시지역은 증
가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각 시·군의 삭감된 인건비 불
용액은 10억인데 전액 교육환경개선을 위
한 2부제수업 해소 부분에 계상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추세가 농촌지역은 계속 학생이 감소하는 반면 도시지역(청주,충주등은)은 학생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신설 요인이 계속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 김응복 위원 : 시설비중 불요불급한 것은 다소 삭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심사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그렇게 하지요.

○ 권혁풍 위원 : 우선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제가 일선학교장들을 만나면 학교의 필요한 사업등을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는 없지만 타당성이 있는것은 검토하여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지역 출신 교육위원의 입장도 살려 주시는 방향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응복 위원 : 저는 권위원님 의견과 틀립니다.

우리교육위원들이 당초 출신 시·군은 다르나 큰 의미로 도 전체의 교육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선 학교의 어려운 사정은 집행부서에

서 항시 파악하고 있을것이고 그것을 종합조정하여 적절히 해결해 주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내용이 접수 된다면 의장이 조정하여 집행부서에 건의하는 정도가 좋을것 같습니다.

교육위원별로 그 목소리를 높인다면 결국은 지역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아전인수 격이되고 말것입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두분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원님은 현실적인 말씀이고 김위원님은 원칙론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저도 진천에서보면 벌써 화장실을 개축해달라는 등 요구가 많습니다.

이후 이런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합시다.

이미 요구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는 어렵겠고 일단 파악하여 내년도부터 반영되도록 실무진과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간사 이상일 : 예, 제 생각도 같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시설비를 살펴보면 지

역 안배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그건 어제도 말씀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역안배가 되도록 노력 해야겠습니다.

금년도 시설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 시설과장 박성근 : 본청과 시·군예산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청분만 말씀 드리지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시설비가 2,077,56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p 내용 설명)

○ 권혁풍 위원 : 시설비중 불요불급한 것으로 감조정할 만한 사업은 없습니까?

○ 시설과장 박성근 : 저희들은 최대한 절감하여 적은 재원으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한 예로 단양공고 기숙사는 3층까지 외벽은 완료하고 내부시설을 몇년째 하지 못해 기숙사에 들어오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권혁풍 위원 : 충주고에 기숙사 증축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영재학생들을 위한 투자도 좋지만 지역 안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성고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요 ?

혹시 요청해온 일이 있습니까 ?

○ 시설과장 박성근 : 음성고의 경우는 '90년도에 군청의 지원금으로 신축을 하였기 때문에 내부시설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 음성고 등 여러 학교의 예산요구는 더 없었습니까 ?

○ 시설과장 박성근 : 음성여중의 생활관 보수비를 요구했으나 사정이 어려워 반영하지 못했으며 92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음성고 생활관의 누수가 된다고 하여 이번 추경에는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충북체육고 신설을 위한 예산은 당초에 확보되었는데 어떤 재원으로 확보한 겁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도교육회 체전기념

사업비 및 도전입금으로 6억4백만원을 확보 하였으며, 체육단지시설내에 충북체육고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으로 시도계획위원회에서 2차에 통과되고 시의회에서도 어렵게 통과된 상태입니다.

○ 시설과장 박성근 : 상당히 절차가 어려워 아직 공사를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2차에 통과되었으며 10월중에는 착공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 무리를 해서라도 1-2층까지 교사를 완공하여 내년 3월 1일에는 학생들이 입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숙사는 현 여건상 예산확보가 어려워 2-3년내에 완공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운동장 서편 영광의 집을 우선 수선하여 사용코자 67,947천원의 수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우리 재산도 아닌 영광의 집에 67,947천원씩이나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

○ 시설과장 박성근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금사정으로 2-3년내에 기숙사 완

공은 어려우며 금천고와 체육고의 학부형 사이의 마찰이 심하여 한시가 급합니다.

데모, 진정 등 심각합니다.

강원도의 예를 보면 체육고 신설의 아이디어는 우리에게서 가져갔으나 도지사등 관계기관에서 적극 협조하여 18억원의 예산을 보조받아 지금 건축이 진행중입니다.

○ 간사 이상일 : 충북학생회관에 영사기등 내부시설을 올해 꼭 해야 합니까 ?

○ 행정과장 엄갑도 : 주무과가 사회교육체육과입니다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학생회관이 11월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11월에 완공되고 영사기등 내부시설을 할 경우 이를 사용하는 운용요원이 없으면 기기가 사장될 우려가 있는데요

○ 사회교육계장 이형재 : 지금 정원을 신청중이며 정원이 확보되면 곧 충원이 될겁니다.

○ 간사 이상일 : 학생회관 내부시설비에 계상된 특활실 집기중 학생들의 의자를 안락의자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 시설과장 박성근 : 그것은 하이팩에서

나온 집기로 인체공학적으로 만든 것이며
목재로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듯 소파
같은 안락의자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교환대교체비로 계
상된 35,000만원은 그리 시급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9월에 일부 수선을
하여 사용하고 있어 조금 불편하더라도 잘
사용하면 우선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그러면 교환대교체
비는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교환대교체비 35,000
천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사립학교 재정결합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설립자는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작년까지는 재정
결합보조금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하여 부족
되는 경우 법정부담금까지 국고보조하여
주었으나, 올부터는 법정부담금은 전액 학
교법인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에서 실제 법정부담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거의 없어 보조를 해
야되는 실정인바 학교법인 부담하는 정도
는 도내 사립학교의 학교비 총 예산의
3%밖에는 안됩니다.

○ 위원장 김사수 : 공립이나 마찬가지로
요.

○ 권혁풍 위원 : 지휘·감독권도 도교
육청에 있습니까?

○ 행정과장 엄갑도 : 일반적인 사항만
지휘·감독하고 있으며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간사 이상일 : 학생회관 내부시설비중
피아노구입 같은것은 이번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구입하고자 신청하면
곧 구입할 수 있을텐데요.

○ 사회교육계장 이형재 : 물론 피아노
같은것은 그렇지만 내부시설은 당초 할때
하여야 집행도 수월하고 예산운영도 효율
적이며 또 어떤기기 같은것은 시일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
어야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 간사 이상일 :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

학생회관은 원안대로 하는것이 좋겠습
니다.

(일동 “좋습니다”)

○ 위원장 김사수 : 예,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예 없습니다”)

예,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적은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적의 편
성하여 건전 재정을 유지코자 노력들 하
셨습니다만, 자금의 효율적운영과 과소비

억제 측면에서 105,000천원을 삭감하여 예
비비로 계상토록 가결되었습니다.

전화대교체는 내년도에 하도록 하시고
오후에는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안을 심사하는데에 성의껏
도와주신 관계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소위원회를 폐회합니다.

(11시59분 폐회)

○ 출석위원수 : 5명

위원장 김사수, 간사 이상일, 위원 김응복, 이근수, 권혁풍

○ 출석공무원 : 7명

행정과장 엄갑도, 시설과장 박성근, 예산계장 김홍묵, 사회교육계장
이형재 외 3명

감사·조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실

1991년 9월 28일(토요일) 1시30분

의 사 일 정(제1차 감사·조사소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출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의사과장 이영규)
2. 위원장 선임(위원장 : 박병해)
3. 위원장 당선 인사
4. 간사 선임(간사 : 권혁풍)
5. 간사 당선 인사

(13시30분 개의)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이영규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11월 정기회의중 실시할 교육·학

예에 관한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선임의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9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사회는 부의장이신 김광수 부의장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등 소위원회 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3시31분) 2. 위원장 선임 ○ 임시위원장 김광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감사·조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조사소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는 정기회의 기간내 5일이내로 실시하되 위원장은 의장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행하되 감사계획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되면 즉시 교육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의전에 감사계획서 작성	교육위원회가 개원되어 처음 실시하게 되는 행정감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 활동을 훌륭히 이끌어 갈 유능한 위원장님을 선임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의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및 간사는 각각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선임하는것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상일 위원 : 몇명 안되는 소위원회이니까 자연스럽게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할것을 제의합니다. ○ 권혁풍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일동: "찬성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수 : 모두 찬성하셨으므로 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부터 선임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충호 위원 : 교직에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는 박병해위원님이 적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박병해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수 : 박병해위원님이 추천 되었습니다.

또 추천 하실분 없습니까 ?

(위원일동 : “예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수 : 다른 추천자가 없으시면 박병해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수 :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병해위원이 감사·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병해위원님께서 당선인사 해 주시지요.

(13시44분)

4. 감사선임

○ 위원장 박병해 : 그러면 간사를 선임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복 위원 : 간사는 아무래도 젊으신 분이 맡아서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혁풍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박병해 : 그러면 감사·조사 소위원회 간사로 권혁풍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위원일동 : “이의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 위원장 박병해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조사 소위원회 간사로 권혁풍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위원님은 저와 협력하여 본건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권혁풍위원님께서 인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13시43분)

3. 당선인사

○ 위원장 박병해 :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저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13시47분) 4. 감사 당선인사 ○ 감사 권혁풍 :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위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받들어 소임을 다할까 합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병해 : 예, 감사합니다. 3일간 회의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피곤	하신 가운데도 감사·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 선임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감사님과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후 다시 여러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감사·조사소위원회를 폐회합니다. (13시49분 폐회)
○ 출석위원수 : 9명 위원장 박병해, 감사 권혁풍, 위원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장충호. ○ 출석공무원 : 2명 의사국장 민병수, 의사과장 이영규.	

부 록

1. 의사일정(안)	103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	104
3.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 명서	109
4.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 명서(추가분)	117
5.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서	121

※ 별책부록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
정예산(안)개요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 2 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1991. 9. 26. - 9. 28.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 26 (목) 14 : 00 (1 차 본 회 의)	※ 개회식 1.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안상정 — 제1호의안 :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제 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2호의안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제2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 산안 3. 예산소위원회구성 (휴 회)	회기 : 9. 26-9. 28 (3일간) 휴회 : 9. 27. (1일) 1차본회의 산회후 예산소위원회 활동 개시
9. 27(금)	1. 휴회. 1일간	예산소위원회 활동 계속
9. 28(토) 10 : 30 (2 차 본 회 의)	1. 의안표결 — 제1호의안 : 충청북도교육 · 학예법제 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제2호의안 :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제2회세입 · 세출추가경정예 산안 2. 감사 · 조사소위원회 구성 (폐 회)	

(별첨 2)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3451호, '91. 8. 16> 시행에따라 명칭등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각교육장”을 “하급교육청교육장”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학무국장이”를 “중등교육국장이”로 한다.

②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갑류”를 삭제한다.

③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을류”를 삭제한다.

④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학무국장”을 “부교육감”으로, “사회체육과장”을 “중등교육국장”으로 한다.

제2조 제3항중 “학무국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과장, 관리국 관리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 부녀청소년과장”을 “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사

회교육체육과장, 초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 청소년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2항중 “사회체육과”를 “사회교육체육과”로 한다.

⑤ 단재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2항중 “학무국장”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 제5항 제1호중 “학무국장, 관리국장”을 “본청 국장급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10월중에 교육감이”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날에”로 한다.

⑥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5항 제2호중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관리과장 (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계장 (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계장)이 된다”로 한다.

동조 동항 제3호중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이 되고”를 “간사는 관리과 경리계장 (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이 되고”로 한다.

신·구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		
<u>회설치조례</u>		
제2조 (조직) ① -----		제2조 (조직) ① -----
-----		-----
② 위원은 <u>학무국장, 관리국장, 기획감사</u>		② 위원은 <u>교육감이 지정하는 7인이상</u>
<u>담당관 및 각 과장으로 한다.</u>		<u>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u>
제3조 - 제6조 (생략)		제3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명 : 충청북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		
<u>치조례</u>		
제2조 (설치) -----		제2조 (설치) -----
<u>각 교육장</u> 소속하에 <u>학교환경위생정화</u>		<u>하급교육청 교육장</u> -----
<u>위원회를 둔다.</u>		-----
제3조 (구성) ① -----		제3조 (구성) ① -----
-----		-----
② 도정화위원회의 위원장은 <u>부교육감이</u>		② -----
<u>되고 부위원장은 학무국장 이되며</u>		----- 부위원장은 <u>중등교육국장</u>
제명 : 충청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		
제2조 (조직) ① -----		제2조 (조직) ① -----
② 협의회 위원장은 <u>학무국장</u> 이 되고,		② ----- <u>부교육감</u> -----
<u>부위원장은 사회체육과장 과 공무원이 아닌</u>		----- <u>중등교육국장</u> -----
<u>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u>		-----

현행	개정 (안)
③ 협의회의원은 <u>학무국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과학기술과장, 관리국 관리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 부녀청소년과장</u>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명 : 단재교육상조례	③ - - - - - <u>초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사회교육체육과장, 초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과학기술과장, 행정과장, 중앙도서관장 및 충청북도사회과장, 청소년과장</u>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제5조 ①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이 교육상 수상대상자 추천마감후 15인이내로 위촉하며, <u>학무국장</u>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제5조 ① - - - - - - - - - - <u>부교육감</u> - - - - -
제8조 (추천 및 심사) ① — ④항 생략	제8조 (추천 및 심사) ① — ④항 : 현행과 같음
⑤ 교육상수상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는자로 한다. 1. 교원 및 일반부문 : 교육장, 고등학교장, <u>학무국장, 관리국장</u>	⑤ - - - - - - - - - - 1. 교원 및 일반부문 : 교육장, 고등학교장, <u>본청 국장급이상</u>
제10조 (시상) ① 교육상은 매년 1회 10월 중에 <u>교육감</u>이 시상하며 제명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제10조 (사상) ① - - - - - 매년 1회 <u>교육감</u>이 지정하는 날에 시상하며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 ④항 생략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 ④항 (현행과 같음)
⑤ 교육청에는 - - - - -	⑤ 교육청에는 - - - - -

현 행	개 정 (안)
1. ----- 2.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u>부위원장은</u> <u>관리과장이 되며</u> 위원은 각 계장이 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u>관리과</u> <u>경리계장</u>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 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 2. ----- 부위원장은 <u>관리과장</u> <u>(단, 청주교육청은 재무과장)</u>이 되며 위 원은 각 계장(단, 청주교육청은 각 과장 및 각 계장)이 된다. 3. ----- <u>관리과 경리계장 (단, 청</u> <u>주교육청은 재무과 관재계장)</u>이 되고.... -----

(별첨3)

1991年 9月 日
忠清北道教育委員會

1991年度忠清北道教育費特別會計
第2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書

忠清北道教育廳

1991년도 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안설명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편성하게된 1991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천 998억 2천 9백 16만 9천 원에 228억 8천 8백 54만원이 증가한 3천 227억 1천 770만 9천 원이고 세출예산도 228억 8천 8백 5십 4만원이 증가한 3천 227억 7백 7십만 9천 원으로 차인 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예산액 48억 8천 9백 28만 7천 원 중 충청북도교육청에서 18억 1천 953만 9천 원이 세출예산에 충당되었고, 각 교육청에서는 13억 714 만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입되어 집행잔액은 17억 6천 260 만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액을 세입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산수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4억 9천 7백 99만 5천 원에 청주농고 실습지 매각대금 15억 8천 9백 3십 4 만 원, 청주여고 부지환지 청산금 2억 4천 5백 77만 7천 원, 의림여중 도로편입부지보상금 1억 4천 7백 16만 7천 원, 현도중 도로편입보상금 4천 6백 5만 5천 원 등 총 15건에 21억 3천 6백 7십 5만 8천 원이 증가한 36억 3천 4백 75만 3천 원입니다.

㉡ 둘째, 사용료 및 수수료는 기정예산액 243억 4천 4백 1만 1천 원에 2억 7천 8백 76만 4천 원이 감소한 240억 6천 5백 33만 7천 원이며, 감소내용은 학생 수 감소 및 학비감면으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세입결손입니다.

- ◎ 세번째, 실습수입은 농업계고등학교의 생산물매각대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9억 1백 52만 1천원에 1억 7천 2백 19만 5천원이 증가한 10억 7천 3백 71만 6천원으로 그 대상은 충주농고의 3개 농업계고등학교 입니다.
- ◎ 네번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2천 164억 3천 2백 39만 1천원에 197억 9천 3백 8십만 4천원이 증가한 2천 362억 2천 6백 19만 5천원입니다. 교부금 수입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으로 특수학교 급식시설비가 3억 9천 380만원, 영세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통학버스 구입비 2억 8천 70만 5천원 등, 158억 6천 2백 1십 4만 3천원이며, 특별교부금은 수업료 결손보전금이 15억 9천 6백 82만 5천원이고, 보통교부금 보전으로 23억 3천 4백 83만 6천원이며 합계 39억 3천 1백 66만 1천원입니다.
- ◎ 다섯번째,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7억 6천 8백 70만 4천원에 2억 6천 9백 59만원이 증가한 20억 3천 8백 29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체육부로부터 체육중, 고등학교 중점종목 육성지원금 1천 1백 90만 1천원과, 중앙교육연수원의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 1천 695만 5천원, 그리고 동력자원부의 한국광산공고 석재과 실습실지원금 1억 7천 4백 5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억 6천 959만원입니다.
- ◎ 여섯째, 기부금은 문의국민학교 동창회에서 급식시설비로 기부한 2천만원입니다.
- ◎ 일곱번째, 전입금은 충청북도청으로부터 피산고 강당신축비 1억원과 청천중 강당신축비 1억 5천만원, 영동군청으로부터 새마을유아원 인건비 5백 60만으로 2억 5천 324만 2천원이 증가한 14억 8천 491만 3천원입니다.
- ◎ 여덟번째, 잡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정기예금이자 및 불용물품 매각대금등으로 5억 2천 171만 5천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액은 53억 5천 8백 64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추가정정액은 기정예산액 2천 998억 2천 9백 16만 9천원에 228억 8천 854만원이 증가한 3천 227억 1천 770만 9천원이며, 과목조정분인 예비비사용은 31억 2천 6백 6십 7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기초과학기술의 진흥. 둘째, 공·사립고등학교의 균형적인 발전. 셋째, 특수교육의 내실화. 넷째,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충실. 다섯째, 교육여건의 개선. 여섯째, 사회체육교육의 강화, 그리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기본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재원별내역은 시설비 50억 2천 959만 5천원으로 19%, 학교부지매입비 172억 8천 5백 112천원으로 69%, 일반경상사업비 28억 7천 4백 93만 5천원으로 1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초과학, 기술교육의 일환으로 과학 및 시청각기자재 지원비 7천 9백 83만 4천원, 과학자료 발간 2천만원, 컴퓨터교육센터운영 1천 7백만원, 컴퓨터구입비 4천 92만 7천원, 그리고 컴퓨터교원연수 404명을 계획하였으며, 공·사립학교의 균형적발전에도모코자 사립 중고등학교 39 개교에 재정결합액 14억 6천 2백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 둘째로, 특수학교 지원으로 청주 혜원학교 및 혜화학교의 3개교에 급식실 2동을 신축하고 기타아동급식에 필요한 집기구입비등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혜원학교에 직업보도실 및 도예실을 설치하여 진로교육 및 특수교육에 내실을 기하고자 3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충실을 기하고자, 국가보조사업으로 한국광산공고에 석재과 실험실습실 1동을 1억 7천 4백만원에 건립하겠으며, 청주농고에는 10억 8천백만원을 투입하여 농업종합실험실습실 및 농업박물관을 신축하

여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이번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물매각대 수입금 1억 7천 2백만원을 4개농고에 전액환원하여 자립농고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상하였습니다.

- ◎ 셋째로,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학습환경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충주고등학교에 생활관(기숙사) 6실을 1억원에 증축코자 계획하였으며, 대도시 지역의 인구집중으로인한 과대학급 및 과밀학급을 방지코자 청주시내에 가칭 “반송” 국민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2십억 4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하여 청주교육청 관내 37개교 실과 제천교육청 관내 2개교실, 계 39개교실을 증축코자 1십억 5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주권역 공업계 고등학교를 재배치하여 쾌적한 학습분위기에서 면학토록 하기 위하여 150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설학교 기본시설을 갖추어 '92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청주시 을량국교외 3개교 및 충주시 충의국교에 9억 7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교실 신·증축 및 행정장비를 보급코자하며; 7천 2백만원을 투입하여 교실 신·증축 및 행정장비를 보급코자 하며, 충일중외 3개중학교에 부족교실 확보비로 1억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여중 생활관 및 강당신축비로 1억 6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학교교육 및 예절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충북도청으로부터 괴산고 강당 신축비를 1억원, 괴산군청에서 1억 5천만원을 보조받아 강당을 신축하고, 학생들의 체육교육 및 각종행사 추진과 주민과의 유대강화등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1일에 개관하는 충청북도 학생회관에 영사기구입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음으로서 학생들의 교양증진 및 소질계발과 전인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의 장으로 운영코자, 8천 1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 넷째로, 체육교육의 충실입니다.

체육전문인 양성기관인 충북체육고등학교선수들의 육성비지원과, 현재 영광의집을 개조하여 선수들의 숙소로 활용코자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개고교 22종목의 후보선수 지원과 특별육성종목지원비로 4천 57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섯째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비진학자들에 대한 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91년도 11월 13일 실시할 계획이며 시험경비로 1천 19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제 2 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엄감도 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본 청각과 및 사업소별 교육청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고보조금 추가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서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교육위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 2호의안인 '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 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1년 9월 18일에 인쇄가 끝나 9월 19일자로 위원님들에게 의안배포가 된후 국고보조사업 네건이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결정통보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국가가 처리해야할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수행케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코자 추진하는 행정처리 방법으로, 그 사업내용은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이며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재량의 여지가 없고, 또한 모든 경비는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예산총계 주의에 입각하여 부득이 추가로 예산편성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번거러움을 더해드려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첫번째로,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사업으로 국민학교 중식지원 아동급식비로 2천 116만 7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지원금입니다.
- ◎ 두번째로, 과학기술과 소관사업으로 '91년도 직업교육 확충사업비 지원입니다. 현재 제천농고 1학년에 원예과가 2학급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2년도 3월 1일자로 원예과 1학급이 폐지되고, 농업정보유통과가 신설

됨에 따라 학과개편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 8천 294만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컴퓨터 구입비 및 컴퓨터 설치에 따른 장치비입니다.

㉠ 세번째는 중등교직과 사업인 '91년도 중학교 사회과교사 일반연수 부족
분 225만 5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 네번째는 사회교육체육과 사업으로 대학 비진학자들에 대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경비로 2단계시험이 '91년 11월 3일에 실시예정에 있으며
이 경비로 1천 564만 5천원이 교부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 2회추가경정예산추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5 >

1991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제 2 회 세 입 · 세 출 추가 경 정 예 산 안 심 사 보 고 서

1991 년 9 월 27 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년 9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1년 9월 26일 회부(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 1차 본회의에서)

다. 상 정 일 자 : 제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예산 소
 위원회(1991년 9월 26일)와 제2차 예산 소위
 원회(1991년 9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본회의 제안설명후 세부사항 소위에서 추가설명 받음.

3. 질 의 및 응 답 요 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권혁풍 위 원	○생산 매각대는 해당 학교에 환원되는가?	행정과장	○해당 학교에 환원함
	○음성고 정구장 보수 사유	행정과장	○수해 때 철망이 파손되어 음성군의 수해복구비를 전 입받아 보수하는 것임
	○공고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소요경비	행정과장	○약 250억정도 소요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권혁풍 위 원	○각 시·군 예산은 편성자료를 시·군에서 작성하는가 여부와 시·군에서 예산편성 자료 작성시 학교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는 것인가 여부	행정과장	○각 시·군별로 예산편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자료를 받지 않고 교·급당경비는 기준에 의거 배정하며, 시·군 실정에 따라 특수사업을 위해 추가 배정하는 경우도 있음
	○음성고 기숙사 건축재원은	행정과장	○독지가가 지원해준 것임
	○교육위원도 출신 시·군 행정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는가 여부	행정과장	○필요 없음
	○충주고에 기숙사 내부시설을 위하여 1억을 지원하는데 음성고에도 가능한가 여부	시설과장	○음성고는 '90년도에 군청에서 전입금을 지원받아 건축하여 내부시설의 필요가 없음
	○충북체육고 기숙사 완공 예정 시기는	시설과장	○예산부족으로 2~3년 후에나 가능할 것임
	○사립학교에 대한 지휘·감독은 어느 선까지 하고 있나	행정과장	○일반적인 내용만 지휘·감독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응복 위 원	○ 직제 개편에 따른 비품 구입비나 수용비 등이 본청에 너무 편중하여 편성된 것 아닌가 ○ 보은상고 사택은	행정과장 관리국장	○ 21억중 13억은 학교 투자액이고 본청분은 8억임 ○ 건축중임
이상일 위 원	○ 행정소송비 8,700천원 중에는 충주 삼원국민학교건도 포함된 건가 ○ 청사 수선 및 전화 시설비로 계상된 41,742천원에 대한 집행시기 및 내용 ○ 카폰 구입비는 어느 차용인가 ○ 충북학생회관 내부시설과 영사기 등은 올해 꼭 구입해야 하는가	행정과장 행정과장 사회교육 계 장	○ 미포함 ○ 청사 수선비는 배관 등이 남아 이를 수선코자 하며, 전화는 교환대 교체에 필요한 금액임 ○ 부교육감의 승용차용 ○ 꼭 필요함 ○ 예산이 확보되어도 시설하는 시일이 다소 소요
이근수 위 원	○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목적 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되나 ○ 교육행정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는가	관리국장 관리국장	○ 특별한 경우는 지정되어 교부되는 경우도 있고 일괄 교부도 함 ○ '91.8.16 규칙이 제정되었고, 구성된 시·군은 3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이근수 위 원	○교장 사택의 현황은 ○영동고의 교장 사택은	관리국장 관리국장	시·군임 ○도내 학교에 거의 확보되었으며(벽지는 100%임) 시내지역은 실정에 따라 없는 곳도 있으나 연차적으로 확보 예정 ○사택 건축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학교측에서는 아파트를 구입코자 하는바 예산부족 등 의견의 차이로 미추진
김사수 위원장	○청주기계공고 이전부지 매입 예산 150억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아닌가 ○청주기계공고를 매각하여 1:1경비로 이전하는가	행정과장 관리국장	○과거에는 시설결정을 먼저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우선 80%이상 구입이나 매입승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기계공고를 매각하여 이전 경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충북체육고 신설에 투자할 계획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변자	요 지
김사수 위원장	○ 학생회관의 설립위치가 부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 교원연수경비 33,961 천원은 시기적으로 늦은것 아닌가 ○ 교육행정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집기구입비가 시·군 별로 구구한 사유 ○ 학생회관 내부시설비중 영 사기, 비디오키메라, 앰프 시설등은 금년에 설치하고, 그 운영 요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기가 사장될 우 려가 있는바 운영요원 확 보는 ○ 총무과의 교환대 교체 예 산인 35,000 천원을 삭감	관리국장 행정과장 행정과장 사회교육 계 장 행정과장	○ 청주기계공고가 이전하고 나면 학생들의 독서 등 문화공간으로 좋을것임. ○ 이미 연수받은 경비도 일부포함 되어있고, 겨울 방학중 계획이므로 늦지 않음. ○ 시·군별 규모에 따라 위 원수의 차이가나는등 시· 군 실정에 따라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 지금 정원확보를 위해 신 청중이며 내년에는 확보 될 예정 ○ 우선 불편해도 별문제점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사수 위원장	하고 '92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 주고자 하는데 가능한가 ○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가 많은데 설립자의 부담은 없는가 ○ 일시차입금이 1억정도인데 다 필요한가? 이중 70,000 천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가 ○ 시·군 예산이 다액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 금년도 시설사업 현황은	행정과장 행정과장 시설과장	○ 최소한 법정부담금은 부담토록하고 있으나 거의 부담을 못하는 실정으로 학교법인에서 전입되는 돈은 학교전체예산의 3% 정도임. ○ 자금운영에 효율을 기하면 차입사유방지 가능 ○ 농촌지역 학생수 및 학급수의 감소로 농촌학교 교원의 인건비 불용액으로 그 액수가 10억인데 이는 시내의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경비로 전액계상되었음. ○ 이번 추경예산액은

질 의 요 자		답 변 요 지	
질의자	요 지	답 변 자	요 지
김사수 위원장	○영광의 집 태권도장 숙 소개조로 편성한 67,947 천원은 꼭 필요한가	시설과장	2,077,560 천원인데 이는 8개사업임 (세부내용 예산서에 의 거 설명) ○체육고 학생들이 금천고 의 기숙사를 쓰고 있어 학부형들의 반발이 심하 고 충북체육고 기숙사 신축 2-3년 내에는 어려우므로 꼭 필요

4. 토론요지 : 질의와 병행진행

5.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바,

- 총예산 322,839,716천원중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재원은 23,010,547천원으로 재원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의거 기초과학기술의 진흥비에 59%, 공·사립고등학교의 균형적 발전비에 5.5%, 특수교육의 내실화에 18%, 실업계고등학교 교육의 충실비에 7%, 교육여건의 개선비에 19%, 사회교육체육 교육의 강화비에 4%, 공무원 자질 향상비에 0.3%, 일반경상사업비에 3.4%로 소모성 경비없이

건전하게 예산이 편성되었음.

- 파소비 억제 측면에서 총예산 10% 삭감을 목표로 심사했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이미 감안하여 편성하였음.
- 인구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특정지역에 편중하여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
- 하급 교육청의 예산규모 축소의 주된 사유는 학교 및 학급 감축과 이에 따른 교사 인건비 불용액이며 이는 전액 2부제수업 해소경비에 편성되었음.
- 일부지역의 사택건축이 요구됨.
- 예산 투자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삭 감 액 : 105,000,000 원
 - 삭감내역

- 일시차입금이자	70,000,000 원
- 교환대교체비	35,000,000 원
계	105,000,000 원
 - 삭감사유
 - 일시차입금 : 자금운용의 효율을 기하면 차입요인이 발생치 않을것으로 판단됨.
 - 교환대교체 : 비록 타 부처에서 쓰던 것을 관리전환 받은것이라고는 하지만 금년 9월에 일부 수리를 하여 사용중이고 현 관리 상태도 무난한 편인바 물자절약 측면에서 교환대 교체를 당분간 보류함이 타당할 것임.
- 종합평가
 - '91 충북교특제 2회추경예산액은 예비비포함 가용재원 261억 3천 722만 6천

원중 59%인 154억 2천 4백 51만 7천원을 공업계학교의 재배치 추진과 컴퓨터구입, 시청각 자료실운영 및 컴퓨터 교육센터 운영, 행정장비 지원등 영재교육을 위한 기초과학 기술교육에 투자하고, 교육여건의 개선에 있어서는 2부제수업 해소 및 신설학교와 재배치학교의 부지매입, 신설학교의 필요시설 충당, 부족교실 증축등 교육여건의 개선 및 학생 수용시설에 예산액의 19%인 49억 9천 6백 9만 9천원을 투자함으로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노력하였으며, 기관운영비 등 일반경상행정비는 3.4%인 8억 9백 69만 4천원을 유지하는등 적은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에 적의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유지코자 노력한바, 향후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함으로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토록하고, 끝으로 도출된 문제점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바람.

6. 수정안의 요지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1. 9. 27. 위원장 김 사 수 외 4명
- 수정이유
 - 일시차입이자 : 금년도 3개월밖에 남지 않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일시차입을 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을 것임.
 - 노후전화교환대 교체경비 : 다소 노후하여 전화혼선등 상태가 좋지 않으나 우선 사용가능하므로 파소비 억제 측면에서 삭감하고 '92년도에 교체토록 하고자 함.

○ 수정 주요골자

- 총무과 청사관리중 전 화교환대 교체비 35,000 천원 전액 삭감
 - 재무과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 109,589 천원중 70,000 천원 삭감
- 계 △ 105,000천원
- 삭감액 105,000 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

7.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요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건의 (김응복 위원)

첨부서류: 1.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1부. 끝.

1991. 9. 27.

예산소위원회

위원장	김	사	수
간사	이	상	일
위원	김	응	복
"	이	근	수
"	권	혁	풍

1991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 2 회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년월일 : 1991. 9. 27.

제 출 자 : 예산소위원회위원장 외 4명

1. 제 안 이 유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1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 2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 불급한 세출과목을 감액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안함.

2. 주 요 골 자

일시차입금 이자 70,000 천원과 전화교환대 교체비 35,000 천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함.

3. 수정동의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안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 본 청 관) 상 환 금 항) 상 환 금
세항) 기채상환 목) ‘국내차입금이자’ 중 일시차입금
109,589천원을 39,589천원으로 한다.

장) 본 청 관) 시 설 비 항) 기 타 시 설
세항) 기타시설 목) ‘자산취득비’의 교환대교체비
35,000천원을 전액 감한다.

장) 본 청 관·항·세항·목) ‘예비비’ 중 1,762,608천원을
1,867,608천원으로 한다.

199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내용

(금액단위:천원)

과				목		수 정 안	증 감	비 고
관	항	세	항	목				
시 설 비					3,170,913	3,135,913	△ 35,000	
		기타시설			3,170,913	3,135,913	△ 35,000	
상 환 금			기타시설		239,080	204,080	△ 35,000	
				자산취득비	93,180	58,180	△ 35,000	교환대 교체비 삭감
					136,989	66,989	△ 70,000	
	상 환 금				136,989	66,989	△ 70,000	
			기체상환		136,989	66,989	△ 70,000	
				국내차입금 이자	136,988	66,988	△ 70,000	일시차입금이자 삭감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예 비 비	1,762,608	1,867,608	105,000	
세 출 합 계					322,839,716	322,839,716	0	